

제16회 학술심포지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광주 역사문화자원

-희경루 중건, 그 역사적 의미와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

- 일 시 : 2023년 11월 15일 (수) 오후 2시
- 장 소 : 동구 미로센터 1관
- 주최·주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후 원 : 광주광역시



##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3:50	등 록	
14:00	개회 및 인사말	
<b>SESSION I 주제발표</b>		
<b>사 회 : 노성태(남도역사문화원장)</b>		
14:10 - 15:10	광주읍성 고찰로 본 광주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과제	김원중(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실장)
	희경루 건립 추진 과정과 이후 활용 방안	천득염(한국학호남진흥원장)
	도시공간 변천에 따른 역사문화 기반 도심재생 방안	이영미((주)집합도시 대표이사)
<b>SESSION II 주제별토론</b>		
<b>좌 장 : 노성태(남도역사문화원장)</b>		
15:10 - 16:00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박준수 (전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16:00	정성구 (UCL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16:00	종합정리 및 폐회	

## <목 차>

발표1> 김원중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실장	05
발표2>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	19
발표3> 이영미 (주)집합도시 대표이사	41
토론1>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59
토론2> 박준수 전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63
토론3> 정성구 UCL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67

**발표 1 :**

**광주음성 고찰로 본  
광주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과제**

**김 원 중**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실장)



# 광주읍성 고찰로 본 광주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과제

김원중(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실장)

## 1. 들어가는 말

광주는 조선 고종 33년(1896)에 이루어진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전라남도 관찰부(觀察府)가 설치되면서 호남의 중심 도시로 발전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후 광주가 130여년 가까이 변화된 과정을 보면 확실히 계기점이 된 것만큼은 부인하기 힘들다. 1910년 관찰부를 도청(道廳)으로 개명하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광주군은 목포부·여수군·순천군·나주군 등을 포함하는 23개 부·군의 중심지가 되었다. 광주군은 읍성을 중심으로 광주면을 포함하여 15개 면 152개 리를 관할하였고, 갈전면 일부와 대치면은 담양군이 되었다. 1931년 광주읍으로 승격되고, 1949년 광주시로 개칭되었다. 1986년에 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고 1995년 광역시가 되었다. 현재는 면적 501.1km<sup>2</sup>, 인구 1,462,545명(2021.12.31. 기준), 5개 자치구에 97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광주는 백제 이래 무주(혹은 무진주)로 불리다가 통일신라시대에 9주5소경(9州5小京)의 하나였던 무진주의 치소가 되면서부터 전남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sup>1)</sup>이다.

심언광(沈彦光, 1487~1540)은 희경루기(喜慶樓記)에 “남쪽의 산들 중에서 무등산이 가장 높다. 산 아래에 있는 읍이 수십이 되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이 광주이다. 광주가 주(州)로 된 것은 아주 옛적부터인데, 고려사(高麗史)에서 ‘전라도의 거읍’이라 하였다. 이집(李集)의 시에서는 ‘남쪽의 웅번(雄藩)’이라 말하였다. 토지가 넓고 사람과 물산이 성대하여 나주, 전주 두 주와 더불어 서로 첫째 둘째를 다투었다.”<sup>2)</sup>고 적고 있다. 광주가 갑자기 관찰부가 들어서서 줄지에 대도시가 되어버렸다고 보는 시각은 일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의 역사를 바로 보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광주는 무척 오래전부터 선조들이 터를 잡고 살아왔음을 고고학적 발굴조사에 의해 이미 구석기시대 유적이 치평동·매월동·산월동·용두동·소촌동 유적과 신촌유적

1) 김기곤, 임영진 외 공저, 『광주학의 기원과 역사 찾기』. 2018.

2) 김덕진 외 공저, 『광주읍성』,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3.

등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신석기시대는 노대동 유적 등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은 다수의 지석묘와 토광묘, 무문토기 등이 풍암동·매월동·송암동·임암동·연제동·월전동·외촌유적·수완지구 택지개발구역 수문유적과 신완유적 등지에서 무문토기·세형동검편 등의 채집과 분묘유적·주거지가 발굴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말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저습지 유적이 확인된 신창동유적 등이 있다. 여기에 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시기의 유적과 청동기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유적 등이 다양한 유구가 광주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백제와 병행하는 시기의 마한 유적은 하남택지개발지구, 하남2택지개발지구, 선암동유적에서는 주거지 수백여 기가 조사되었다. 운림동에서는 통일신라 석실분들이 군집을 이루고, 누문동에서는 통일신라 건물지가 조사되었으며, 금남로 지하철 공사구간에서는 통일신라 기와편과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무진고성에서는 성벽의 축조상태를 비롯하여 건물터, 성문터 등을 조사한 결과 늦어도 8세기말 이전에 축조되었으며, 9세기 말경에 수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up>3)</sup> 조선시대 광주읍성<sup>4)</sup>에서는 조선시대 성벽 아래층에서 통일신라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많은 부분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부지 개발, 도로 건설, 철도 이설 등 개발과정 중에 발견된 유적지를 발굴 조사한 결과들이다. 그 많고 많은 역사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지만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도로 그리고 신축 건물에 의해 밀려나는 현실은 광주라는 도시의 역사를 가볍게 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자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광주읍성의 구조와 건물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업과 연관시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광주읍성의 고찰

좋은 도시는 세월이 쌓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도시다. 그 시간의 흔적들이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훨씬 잘 드러난다. 광주읍성을 고찰하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옛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 속에서 공간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축적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광주에 살았던 사람이든 나그네였던 간에 그들은 오랫동안 배이고 스며있는 장소에 대한 존

3) 임영진 외 1989, 『무진고성 I』, 전남대학교 박물관.

4) 전남문화재연구원, 『광주읍성 I-1·2구역』,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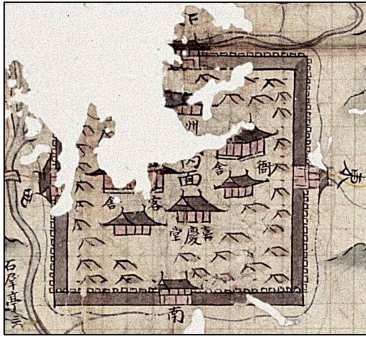


경과 애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라진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시로 남기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고치고 세우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한 내용들은 지리지(地理志), 기문(記文)이나 시(詩), 문집(文集) 등에 남겨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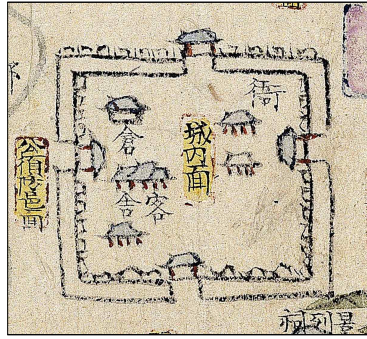
### 1) 광주읍성의 구조와 주요 건물들

광주읍성에 대한 최초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나는데 '읍성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972보이다'<sup>5)</sup>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언제 축조되었는지,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세종실록 지리지 외에 신증동국여지승람<sup>6)</sup>, 동국여지지 등 조선시대에 작성된 지리지류는 대부분 '광주읍성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8,253척, 높이가 9척, 성문은 4개, 우물은 100개이며 못은 없다'<sup>7)</sup>고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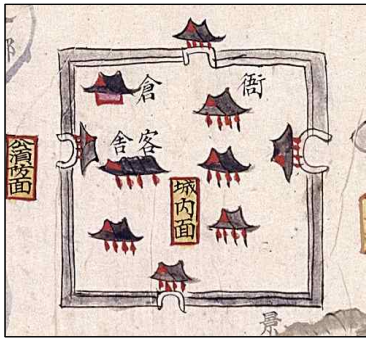
- 
- 5) 『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 무진군조 「邑石城 周回九百七十二步」.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광주읍성은 전국 335개소 행정공구 중 읍성이 설치된 96개소 가운데 하나다.
- 6) 읍성의 규모 비교(신증동국여지승람 기준) 광주읍성 : 둘레 8,253척, 높이 9척 / 전주읍성 : 둘레 5,356척, 높이 8척 / 나주읍성 : 둘레 3,216척, 높이 9척 / 고창읍성 : 둘레 3,080척, 높이 12척 / 낙안읍성 : 둘레 1,592척, 높이 8척
- 7) 광주읍성,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1997, 14~1 쪽, 재인용.
- ① 읍성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972보이다(邑石城 周回九百七十二步, 『세종실록』 151 地理志 茂珍郡條)
- ② 읍성은 돌로 쌓았다. 주위가 8253척, 높이가 9척이며, 안에 우물 100개가 있다.(邑城 石築 周八千二百五十三尺 高九尺 內有百井,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5 光山縣城郭條)
- ③ 주성은 돌로 쌓았는데 8253척이고 문은 동서남북 넷이고, 안에 100개의 우물이 있다.(州城 石築八千二百五十三尺 立門四 東曰 南曰 西曰 北曰 內有百井, 『東國輿地志』 光州 城郭條)
- ④ 읍성은 돌로 쌓았다. 둘레가 8253척 높이는 9척이다. 안에 우물 100개가 있고 못은 없다.(邑城 石築 周八千二百五十三尺 高九尺 內有百井 池無, 『輿地圖書』)
- ⑤ 읍성은 돌로 쌓았다. 둘레가 8253척 높이는 9척이다. 성문이 넷이고 우물이 100개 이다.(邑城 石築 周八千二百五十三尺 高九尺, 城門四 井一百, 『輿圖備志』)
- ⑥ 읍성은 주위가 8253척이며 성문은 4개이고 우물은 31개이다.(邑城 周八千二百五十三尺 城門四 井三十一, 『大東地志』)
- ⑦ 읍성은 둘레가 1401파이다.(光州牧邑城 周回一千四百一把, 『海東地圖』 下 光州牧)
- ⑧ 읍성은 돌로 쌓았는데 주위가 8253보이고 높이가 9척이며 여첩은 없으며 성문은 4개이고 못은 없다.(邑城 石築 周八千二百五十三尺 高九尺 女堞無 城門四 池無, 『湖南邑誌』 光州邑事例 城池條)
- ⑨ 읍성은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8253척 높이는 9척이고 우물은 100개이며 여첩은 없고 성문은 서원, 진남, 광리, 공북문 넷이고 못은 없다.(邑城 石築 周八千二百五十三尺 高九尺 井一百 女堞無 城門四 瑞元 鎮南 光利 拱北門 池無, 『光州邑誌』 城池條)
- ⑩ 읍성은 돌로 쌓았다. 둘레가 8253척이다. 성문이 넷인데 동은 서원문, 서는 광리문, 남은 진남문, 북은 공북문이다.(邑城 石築 周八千二百五十三尺 城門四 東瑞元 西光利 南鎮南 北拱北, 『朝鮮環輿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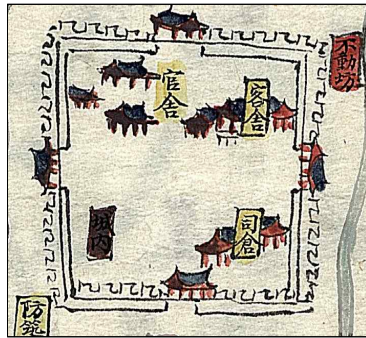
비변사인방안지도(18세기)



여지도(18세기)



광여도(19세기)



호남읍지(1871년)

광주읍성은 성곽을 통해 성안과 성밖으로 나누어졌다. 성곽 중간에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각각 문이 있어 성안으로 들어오거나 성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광주읍성은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있었다. 동쪽은 서원문(瑞元門), 서쪽은 광리문(光利門), 남쪽은 진남문(鎭南門), 북쪽은 공북문(拱北門)이라는 이름이 적힌 현판이 걸려 있었다.

성문의 이름에는 각각 의미가 담겨있다. 북문은 북쪽 한양에 있는 군왕에 대한 충성의 의미를 담아 공북(拱北)으로, 남문은 왜구로부터 남쪽을 수호한다는 뜻에서 진남(鎭南)으로 지은 경우가 많다. 고려조와 조선조 초기에 왜구의 침입이 많았던 까닭이다. 반면 광주읍성 동문과 서문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은데, 동문은 동쪽에서 태동하는 상서로운 기운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서원(瑞元), 서문은 만사형통을 바라는 염원과 광주 또는 광산(光山)의 서쪽 문이란 뜻을 함축해 광리(光利)라고 이름 지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때 서원에서 '원'은 주역(周易)에서 동쪽 방위를 의미하고, 광리에서 '리'는 서쪽에 해당한다고 한다.<sup>8)</sup>

광주읍성 4개의 문 가운데 대표성을 띠는 문은 단연 북문, 공북문이다. 임금이

8) 조광철, '공북문·서원문·진남문·광리문, 광주의 사대문', 광주드림, 2010년 10월 5일자 보도

있는 도성과 연결된 길로 나아가는 문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을 기점으로 하는 6개의 길이 있었다.<sup>9)</sup> 이 가운데 광주와 연결되는 길은 제주로(濟州路)였다. 한양에서 수원, 천안(전라도와 경상도 분기점), 공주, 삼례, 장성, 나주, 해남(또는 무안)을 거쳐 뱃길로 제주에 이르는 길을 지칭했다. 여기에서 해로를 제외한 육로구간을 '호남대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성에서 해남까지의 거리는 1,000리로 지금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400km이다. 관리들은 말을 탔지만 말을 끄는 종자들은 걸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말을 탔다고 하여 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았다. 하루에 100리 안팎을 걸었다고 하며, 더위와 장마 같은 일기의 변수에 영향을 받기도 했으므로, 멀리 이동할 때는 여름과 겨울을 피했다.<sup>10)</sup>

광주읍성에서는 네 개의 성문을 기점으로 길이 뻗어 나갔다. 동문길은 현재 전남 여고 후문 앞 네거리에 있던 동문을 기점으로 한다. 동문은 경양호, 경양역을 거쳐 창평 또는 담양, 순창, 남원으로 향했다. 전남 북동부 지역을 잇는 길이었다. 지금의 황금동 사거리에 있었던 서문은 남구 대촌동을 지나 남평현, 나주목으로 연결됐으며 전남 남부지역과 연결되었다. 남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안에 있었는데, 그 바깥쪽에 홍살문이 있었다. 남문을 통과하면 광주천과 증심사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닿았고 너릿재를 넘어 화순, 능주목으로 갈 수 있었다. 보통 전남 동부지역을 오갈 때 이용했다.

북문은 북문밖에 있던 공북루와 유림숲을 지나 비아장을 거쳐 장성을 통과해 도성으로 이어졌다. 지금의 충장로 파출소 즈음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문을 통해 목사와 현감 등이 새로 부임하거나 떠나갔다. 이렇게 도성과 연결되고 이 길을 따라 관리들의 행차가 이어졌기에 광주에서는 북문이 4개의 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으로 인식되었다.

성 안은 관아와 민가로 이루어졌고, 관아는 다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뉘었다. 공적인 공간의 대표 건축물로 객사(客舍)와 동헌(東軒)이 있다. 광주읍성의 객사는 광산관(光山館)이라 하였으며, 동헌은 하모당(何暮堂)이라 불렀다.

이 외에 향청(鄉廳), 작청(作廳), 공수청(公須廳), 장청(將廳), 형방청(刑房廳), 형옥(刑獄), 창고(倉庫) 등 통치에 필요한 여러 관아건물들이 배치되었다. 또한 소빈헌 월소루(笑嘖軒 月小樓), 신향각(新香閣), 향사당(鄉射堂), 훈련청(訓練廳), 연무당(鍊武堂), 희경루(喜慶樓), 황화루(皇華樓), 봉생정(鳳笙亭) 등이 관아 내에 있었다

9) 신경준(申景濬)은 '도로고(道路考)'에 도성에서 시작해 길이 끝나는 종점의 지명을 딴 6개의 길을 기록하고 있는데, 6대로는 의주로(義州路), 경흥로(慶興路), 강화로(江華路), 평해로(平海路), 제주로(濟州路), 동래로(東萊路)였다.

10)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길에서 남도를 만나다', 2013년 5월 기획전시

## 2) 역사의 격변기 마다 부침 거듭한 읍성

변이중, 이안눌, 서정연 등이 남긴 기록을 보면 정유재란 당시 광주는 피해가 극심해 열 집 가운데 여덟, 아홉 집이 빌 정도로 폐허가 되었다. 홍명원은 1615년 광주목사로 부임해 파괴된 관아를 건설한 후 '하모당기(何暮堂記)'에 관아 터가 황폐해진 지 100년에 달하고, 병화에 소실되었지만 수령 8~9명을 거치는 동안에도 회복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나 가시덤불과 잡목만 가득했던 터에 회랑과 처마를 두른 아사를 지으니, 모든 것의 제자리가 잡혀 보는 이 모두가 감탄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렇듯 역사적인 격변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광주읍성 안의 건물뿐만 아니라 성곽도 수·개축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성벽은 폭을 넓히는 동시에 큰 성돌로 외벽을 쌓고, 안쪽과 상부는 흙을 경사지게 다진 내탁법으로 고쳐 쌓았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축성방식을 잘 반영하는 석축성으로 변화를 거듭했다. 또한 광주읍성은 성벽 주변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고랑을 내거나 자연 하천 등의 장애물을 이용하여 성의 방어력을 높이는 해자(壕字)와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사용했다.

하지만 대한제국이 시작되며 광주는 과거의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경양역이 폐지되고 광주 우체사(郵遞司)<sup>11)</sup>가 설치되었으며, 포교를 위해 일본인과 서양인들이 들어왔다. 이 시기 광주읍성 내에 위치했던 관아건물들은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우체국, 병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최소 500년 이상 광주 치소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보이는 광주읍성은 서서히 사라졌다. 성벽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제 통감부가 1907년 성벽처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 철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는 그 전에 무너졌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강제 한일합병조약 직전인 1910년 1월 23일 발행된 황성신문은 “광주군의 성벽과 문루를 뜯어낸 토목재를 사용하겠다고 해당 도의 관찰사가 내부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광주읍성 내에 있던 수많은 관아 건물은 이 시기 일제에 의해 뜯겨지고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읍성 내에 위치했던 수십 채의 관아건물은 언제, 어떻게 철거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일제가 광주의 정치, 행정을 장악하게 되면서 옛날 관아는 도청, 군청, 헌병대 등으로 개조되어 사용되다 점차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수탈(植民收奪)과 식민세력의 확장을 위한 경제기능 중심의 공간체계(성곽을 비롯한 전통시설의 철거 후 도로 및 관련 시설 건립)를 형성해나갔다. 읍성파괴는 조선의 것을 지우고, 일본인 거주지역을 확장하면서 근대화라는 허울 아래 기존의 것들을 파괴해 나갔다.

11) 근대적 우편업무를 관장하던 관청

조선시대 말 관찰부 시절 관아 건물 중 '비교적 큰 건물을 광주군청으로 사용했다'는 기록과 '69평짜리 광산관이 회의장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1917년 일본인에 의해 작성된 광주지방사정(光州地方事情)에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관찰부와 객사로 '광산관'이라 했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에게 매도되어 헐리고 동방극장(현 무등극장 자리)이 들어섰다. 또 1933년 작성된 광주군사는 "옛날 성벽은 광주읍성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옛 성내면 외곽은 지금 거의 도로로 바뀌어 언덕의 형태가 겨우 동쪽 도청 소속 관사와 관사 뒤편 군청 방면의 수십 칸만 약간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해방 이후 광주는 명실상부한 전라남도 대표도시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조선시대 관아건물들은 단 한 채도 보존되지 못하고 모조리 사라졌다. 그나마 객사(客舍) 정문에 있었던 2층 누각인 황화루(皇華樓)가 1970년대 초반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과거 광주읍성의 북문과 남문을 잇던 도로는 광주의 대표 상권인 충장로가 되었다. 광주읍성을 둘러싸던 성돌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광주천의 징검다리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충장로 일대에 지어진 건물의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있을 뿐이다.

### 3) 희경루 중건으로 새로운 계기 맞은 현재

1992년 4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광주읍성 유허가 드러났다. 전남도청의 민원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정리를 하던 중 전남도청의 뒷담 부근에서 성벽의 유적인 성돌과 성벽하부의 토축으로 보이는 유적이 확인되어, 1994년 4월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0호 '광주읍성유허'로 지정되었다. 또한 1996년 황금동 사거리 일대에서 전력선 지중화 공사 중에 광주읍성 서쪽 성벽의 기저부가 발견되어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성돌은 대부분 40~60cm 크기의 자연석을 이용하였고 극히 일부 다듬은 돌을 사용했다. 특히 조사지역 주변에 석탑재와 문초석 등이 산재한 것으로 미루어 성을 축조할 당시 인근의 폐사지와 같은 건물터 잔해를 석재로 이용했을 것으로 발굴팀은 추정했다. 성벽은 지표면을 다지고 그 위에 돌을 올려놓았으며, 작은 돌을 밑에 받히고 돌의 상면을 맞췄고 바깥쪽은 큰 돌로 쌓고 안은 잡석채움을 했다. 성벽의 기단부 폭은 3.4~4m였고, 성을 쌓은 방법은 엇쌓기였다.

광주읍성터 발굴조사 이후 현지보존이 어려운 성돌 일부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앞으로 이전, 복원되었다. 안내문에는 '조선시대 치소(治所)였던 광주읍성은 고려 말에 축성되었고, 1900년대 초반에 그 기능을 잃었다'고 간략하게 500여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sup>12)</sup>

이후 2006년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에서도 광주 읍성의 하부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전당이 완공된 후 성벽의 일부를 문화창조원 옥상에 복원해 전시하고 있다.

한말의 어지러운 상황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졌던 광주읍성의 유적들이 광주 중심부 밑바닥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겨오다 개발이라는 계기를 통해 드러내었지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흩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아쉬움은 광주읍성을 현재에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서석교에 세워진 광주읍성 상징 조형물<sup>13)</sup>이 그러하고, 과거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광주읍성의 터를 유형적 자산으로 재생하여 시민의식의 고취와 역사 복원, 장소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광주읍성의 4대문 터를 비롯한 10곳의 중요한 읍성의 흔적을 따라 광주폴리<sup>14)</sup>가 설치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광주의 도시형성의 뿌리인 읍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복원 열망은 희경루 중건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총장로우체국 부근에서 최초 건립된 지 572년, 사라진 지 100여년 만에 광주공원으로 옮겨 세워졌다.

### 3. 광주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과제

#### 1) 사이버광주읍성 구축

광주는 오래되면서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도시다. 그런 광주 역사를 대변해주는 것으로는 인물, 사건, 기록물, 유적, 건물 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500년 세월 동안 치소로씨의 역할을 담당했던 광주읍성이 으뜸이다.

광주읍성을 둘러싼 자연과 건축 그리고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는 조사와 연구가 매우 중요했다. 또한 동시에 광주읍성 복원이 일정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지난한 작업이어서 그 대안이 모색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사이버 광주읍성 구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즉 인터넷상에 광주읍성을 그려보자는 것이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친 연구 조사에 기반하여 콘텐츠를 제작

12) 광주읍성,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1997, 65~69쪽.

13) 2008년 광주천 교량경관사업을 통해 설치된 것으로 광주읍성을 현대적으로 형상화한 아치형 조형물로 읍성의 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빛의 이미지로 표현했다.

14) '폴리(Folly)'의 건축학적 의미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을 뜻하지만 광주폴리는 공공공간 속에서 장식적인 역할 뿐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까지 아우르며 도시재생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공공프로젝트 건축물이다. 2011년 시작된 1차 광주폴리는 천년의 역사와 호흡하는 작품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고, 그 결과물인 보고서와 가이드북 책자 그리고 웹툰, 지도, 스마트폰 앱 등을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해 시민들과 성과를 공유한 바 있다.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음성을 파노라마처럼 사이버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완벽히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광주역사문화자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20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재개장하면서 신설된 2층 광주근대역사실은 조선시대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의 모습과 의향 광주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광주 관문으로 위기 때마다 의병청 기능을 담당했던 역사적 공간인 절양루를 축소 복원해놓고 있으며, 대형 광주읍성 모형도 원형에 가깝게 재현했다.

## 2) 광주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과제

역사문화자원은 과거로부터 집적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적 소산물로서 경제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축적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은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딩 구축 등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역사문화자원에 쉽게 접근하여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문화자원이 인류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며 이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만이 아니라 민족문화진흥은 물론 세계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서는 광주지역의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시민들의 삶터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는 뜻에서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광주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서 1천 가지의 자원을 선별해 DB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1백 가지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했다. 광주지리, 문화유산, 성씨인물, 경제사회, 종교복지, 교육문화, 생활민속, 설화문학 등 1천 가지의 역사문화자원과 1백 가지의 스토리텔링을 토대로 새로이 1백 개의 웹툰과 8종의 역사문화지도(1872년 광주 고지도를 기반으로 한 <광주역사문화지도>, 근대건축유산을 지도화한 <광주건축문화지도>, 광주지역 도로명에 투영된 41명의 인물을 담은 <광주 인물도로명 지도>, 광주지역의 국보, 보물, 문화재자료 등을 총 망라한 <광주 문화재 지도>, 시비를 담은 <광주시비 지도>, 누정을 총 망라한 <광주 누정 지도>, 광주지역의 재미진 맛을 나타낸 <광주 음식문화지도>, 지역민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을 장소와 함께 소개한 <광주 전설 지도>)를 제작해 누리집(gjstory.or.kr)에 탑재하고 책자료와 리플릿으로도 발간했다.

1,000개 자료는 8개의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검색기능을 통해 광주의 역사문화 관련 자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 단행본으로 발간했던 『광주역사문화자원 100』 상·하권과 『광주역사문화자원 웹툰 100』,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웹툰』을 파일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는 신라시대 9주5소경의 하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거읍이었으나 남아 있는 유물은 많지 않다. 근현대 건물, 시설 등도 원형이 훼손되거나 철거된 사례가 많고, 도심재생사업이나 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없어지거나 이전된 경우도 있다. 때문에 세대가 지나면 역사문화가 단절될 가능성도 크다.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업은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 수집하여 기록으로 남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민간 영역에서 이 정도의 DB와 콘텐츠를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운영주체가 많은 출혈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민관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광주문화재단, 광주연구원, 광주관광공사, 문화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콘텐츠 제공 및 플랫폼 구축 등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에 기반한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해 역사문화자원 연구와 활용을 전체적으로 조망, 기획, 관리할 수 있는 '광주학센터'와 같은 기관이 역할을 통합해나가야 한다. 역사문화자원 조사, 연구, 보존, 콘텐츠 개발, DB 구축, 아카이빙 등 상시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광주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연구와 콘텐츠 개발이 결국은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착심을 키우는 것이라면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3. 나가는 말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이 도시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시대에, 사라진 광주읍성은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광주 천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보한 문화도시 초석을 다지는 핵심 브랜드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최근에 희경루가 중건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를 계기로 광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지역정신을 찾아가고, 광주의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재조명하여 그 지평을 넓히고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연구자와 시민의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광주인의 삶이 아닐까?

광주읍성이 사라진 것도, 태봉산을 깎아 경양방죽을 메웠던 것도 광주 도시역사에서 어두운 역사이겠지만 희경루를 새롭게 복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기쁜 일일 것이다. 희경루 복원을 계기로 흔적 없이 사라진 광주읍성을 포함한 광주의 역사문화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때이다.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주라는 도시가 우리들의 삶과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발표 2 :**

**희경루(喜慶樓) 重建의 始末과  
활용 방안**

**천 득 염**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 희경루(喜慶樓) 重建의 始末과 활용방안

천득염(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 1. '기쁘고 경사스러운' 희경루(喜慶樓) 증건

조선시대 지방의 행정 단위는 府, 牧, 郡, 縣의 순서로 그 위계를 정하였다. 지방에 읍성이 건립된 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약 160개소에 이른다. 이들 읍성에는 각 고을마다 위상에 어울리는 관아와 부속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또한 중앙 왕권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객사와 향교를 비롯하여 동헌, 내아 등의 공공시설이 자리하였는데 더불어 누각도 건립하였다. 이를 관아누각이라고 한다. 이제 현대 광주에도 희경루(喜慶樓)라는 장엄한 누각이 옛 모습을 찾아 새롭게 자리하게 된다.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란 의미를 가진 희경루는 조선시대 광주목 읍성 내에 있었던 관아의 누각이다. 희경루의 연혁과 건축형태 등에 관해서는 기문(記文), 시문과 그림, 지리지 등에 나타나고 당시 고지도의 표기를 통해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신숙주의 기문(1451년)에 의하면 1450년 태수 안철석이 고을 안에 관유(觀遊) 할만한 장소가 없는 것을 아쉽게 여겨 1년여 뒤 새로이 누(樓)를 짓고자 고을의 어른들과 의논하였더니 예전에 무너진 공북루(拱北樓)의 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여 동향으로 누각을 지었다 한다. 원래 공북루의 터라고 하면 희경루 초창 시기의 위치는 북문인 拱北門 밖이 될 터인데 언제 읍성 안으로 들어왔고 언제 희경루 그리고 나중에 다시 관덕정이라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많은 이들은 성안으로 들어와 자리했던 곳은 지금의 충장로 우체국 자리로 비정한다.

사실 희경루가 건립되기 20여년 전인 1430년(세종 12년)에 읍민 노흥준이 당시 목사 신보안을 구타한 사건으로 인해 광주목에서 강등되어 무진군이 되었던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이런 까닭에 누각이 지어진 6월에 필문 이선제 등이 강등 당한 지 20년이 되었으므로 옛 이름을 찾아 다시 광주목으로 복구해 달라고 상소를 올려 문종 임금의 복호(復號) 허락을 받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으니, 이 누각의 이름을 희경루라 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누각의 동쪽엔 대로가 지나며 그 길 건너에는 활 쏘는 장소를 두어 관덕(觀德)을 하게 했고 서쪽엔 대나무 숲, 북쪽엔 연꽃이 가득 심어진 큰 연못을 두는 등 누각과 주변의 풍광이 잘 갖추어졌음을 전하고 있다.<sup>1)</sup> 관덕이란 활을 쏘며 높은 덕을 쌓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관덕정은 조선시대

1) 신숙주, <喜慶樓記> 『보한재집(保閑齋集)』, 권 14

한양을 비롯해 전국 고을 여러 곳에 있어 보통명사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대표적인 관아 누각으로는 광한루와 영남루, 축석루, 죽서루 등이 있는데, 희경루는 이들의 건축형태와 외부경관은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림 1> 1682년 동여비고(東輿備考)에는 광주와 양림산, 삼각산, 어등산, 장원봉, 무등산, 경양방죽, 십신사, 증심사, 황화루, 희경루, 석서정, 풍영정, 무진도독고성, 고내상성 등이 나타난다.

## 2. 희경루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喜慶樓榜會圖』

신숙주의 『보한재집(保閑齋集)』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여러 가지 고문헌 자료에 의하면 희경루 건립 경위와 연대를 비롯하여 소실과 중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가장 실증적인 자료로서는 1567년(명종 22) 당시 광주목사 최응룡, 전라도관찰사 강섬 등 5명이 같은 해 과거에 합격한 지 2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희경루에서 가졌던 계회(契會)<sup>2)</sup>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희경루방회도」가 전하고 있다.<sup>3)</sup> 이는 16세기에 그려진 과거시험 동기생들의 모임을 그린 계회도(契會圖)로 광주목 관아에 부속된 희경루의 모습과 방회 장면, 주변 경관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그림이다. 그림은 위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정면부감투시(正面俯瞰透視)와 대각선에서 바라보는 평행사선투시가 이중투시로 적용되어 두 가지 시점이 각기 독립적으로 한 화면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에 의하면 희경루는 높게 쌓은 기단 위에 누아래 기둥을 세우고 마루를 구성한 팔작지붕의 누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둥열보다 약간 더 돌출된 위치에 난간을 돌렸고, 기둥에 붉은 색칠을 한 석간주와 기둥상부의 공포 부분에 전통 초록색인 뇌록(靑綠)이 채색된 점으로 보아 심언광의 「희

2) 과거시험에 합격한 동기생들의 모임

3)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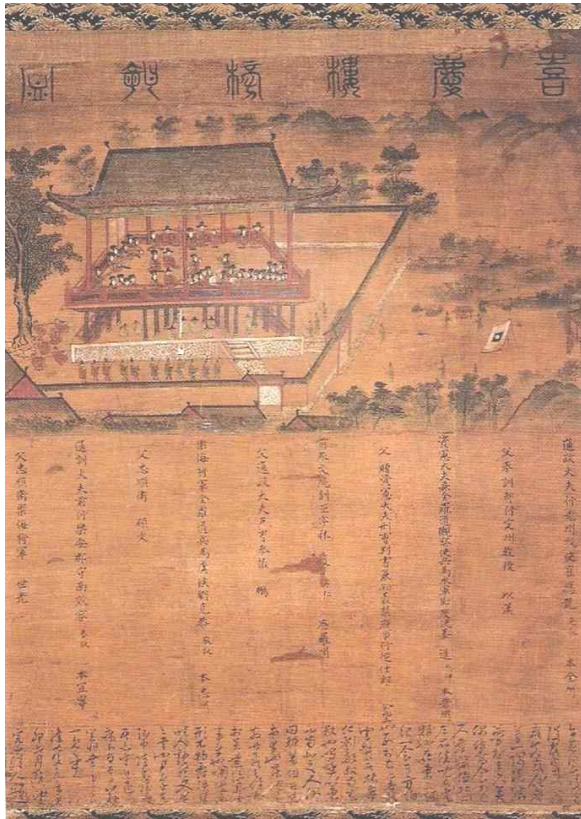


그림 2 희경루방회도(1567년 제작)

경루기」에 묘사된 단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당시 지방 관아에서 가장 치성을 드러 건립한 누각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희경루는 마치 수도의 궁궐에 자리한 경회루에 버금갈 정도로 규모가 크고 중층의 구조로 넓은 마루와 난간을 사용하여 개방감과 확장감을 주고 있다.

이런 희경루는 나중에 광주 읍성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1866년(고종 3) 목사 안응수가 중수한 기록까지만 남아 있을 뿐 언제 어떻게 사라져 버린 내용이 전하지 않는다. 짐작하건데 일제가 강점하기 전부터 지방의 읍성들이 철거되었고 이에 따라 광주읍성 안에 있는 관아건물들이 점점 사라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3. 현대사회에서 희경루의 의미

전라도라는 이름이 나타난지 1,000년이 지난 2018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희경루 복원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모습 그대로 복원할 수 없어 중건이나 재현이 적절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원래 위치로 추정되는 충장로 우체국 주변에 중건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위치를 고민하다 광주공원 모서리가 좋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물론 이곳은 향교의 부속건물이 있었던 곳이고 518과 관련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전통적인 도시공간의 건축이 보기 드문 광주에 새롭게 당당한 모습으로 희경루가 중건되었으니 당호의 뜻처럼 누대에 걸쳐 기쁘고 경사스런 일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차제에 광주읍성의 대표적인 성문인 진남문이라도 중건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어본다. 바라건대 희경루를 멀리 보는 누각으로만 두지 말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공적 행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각종 글쓰기대회, 사령장 수여, 茶會 등 광주 시민의 문화적 품격이 발현되는 모임이 이루어지면 중건의 의미가 더욱 클 것이다.

### 4. 희경루 공간의 활용방안

#### 가. 기본구상

기념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대상과 주체를 구분하여, 구체화함  
'희경루 중건 공간'이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해도,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정체성을 유지

-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자발성과 창의성, 유연성을 확보
-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 역동적이며 조화로운 분위기 연출
- 도시공간에서 차지하는 경관 확보
- 주야간, 4계절 등을 고려한 운영
- 차량 동선을 고려한 접근성과 주차시설
- 주변 공간 및 시설과 연계된 활용

#### 나. 활용계획의 방향

희경루와 관련된 인물의 행적과 사상을 재조명

광주읍성 주변의 도시공간에 대한 실체적 내용(위치, 성격) 규명

양림동, 광주향교, 아시아문화전당 등과 다양한 연계 효과 유도

교육 및 문화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주체들의 체험 및 문  
화교류의 장 제공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세대 및 사회 통합적 가치 추구

#### 다.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자원화

- 희경루 건립시기 광주지역사 기초연구의 선행과 DB 구축 필요
- 당대 인물과 작품에 대한 연구
- 광주읍성의 성격과 형식을 규명하는 학술연구, 학술도서 출간
- 고문헌, 고지도 등의 기초자료 연구 필요
- 활용적 대안 마련
  - 전통문화 체험 교육
  - 지역 축제와 연계·활성화
  - 주변 역사문화 환경과 연계를 통한 광역적뮤지엄 공간 조성
  - 광주공원, 광주천 등 자연생태와 문화경관 탐방로 조성

.....

### 5. 광주읍성과 희경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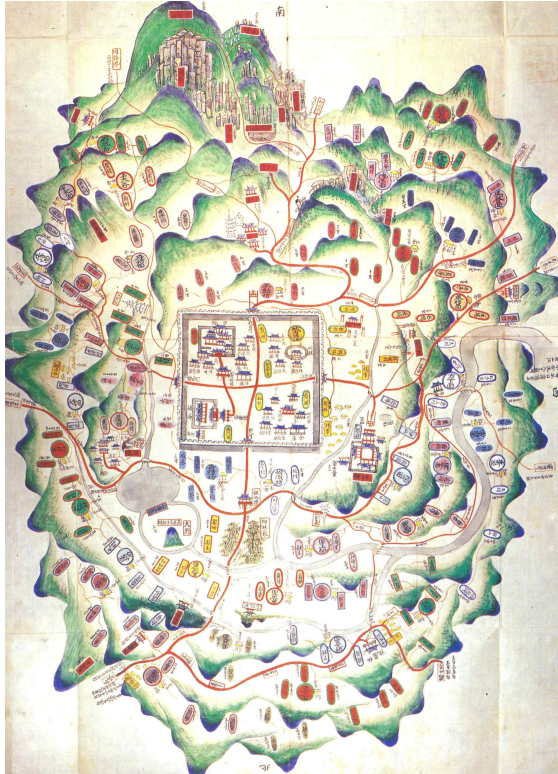
#### 1). 광주읍성의 생성과 변모

옛 광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예는 뭐라 해도 광주읍성



의 흔적이라 하겠다. 영산강의 지류인 광주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나서부터 언젠가 방어적 필요에 의하여 성이 건립되었을 것인데 최초의 성이 통일신라의 9주 5소경의 하나인 '무진도독성(武珍都督城)'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최초의 성은 언제

건립되었는지 알 수 없는 초기적인 것이었을 것이고 성다운 성을 이룬 것은 통일신라시대의 9주5소경이며, 1910년 전후인 일제강점기까지 남아 있는 것은 고려시대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광주읍성'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림 3> 전라도지도 중 광주목 지도(1872년)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광주읍성보다 그 범역이 넓은 통일신라시대의 무진도독성은 충장로와 금남로 사이를 주작대로(朱雀大路)로 하는 전형적인 중국의 성 형식을 모방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발굴에 의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sup>4)</sup>, 통일신라시대의 건립이라고 생각되는 무진도독성이 현 광주 시내권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 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인 광주읍성은 고려시대에 축조되어 현재도 그 흔적

이 도청 주위에 남아 있다. 그러나 무진도독성에 대한 이견들은 아직도 확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경수 향토문화진흥원장은 무진도독고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라도 역사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백제 때 무진주도독은 신라 경덕왕 때 무주(武州)도독이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 보면 무진도독 때 옛 토성은 둘레가 2천560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무진도독고성은 현의 북쪽 5리에 있고, 흙으로 쌓았으며, 주위가 3만2천448척이다. 무진도독고성은 지도상으로는 1682년께 '東輿備考'에 처음 나타난다. 십신사(十信寺) 바로 서편에 무진도독고성이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술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려놓은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십신사가 현 북쪽 5리 평지에 있고, 범어(梵語)로 쓴 비가 있다는 기록을 주목하면 짐작이 간다. 문헌자료를 토대로 보면 무진도독고성은 둘레만 보아도 광주읍성의 4배다. 그 터는 누문동과 임동 일대로 추정된다. 고읍(古邑)은 무진도독고성이었을 개연성이 있다. 고읍에 관한 기록은 대동여지도와 동여도만 있다. 고산자(古山子)는 읍성 북쪽 냇가 건너편에 지도표와 함께 '고읍'을

4) 임영진, 광주읍성유허 문화재, 광주읍성유허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2002.  
 임영진, 황호균, 서현주, 광주누문동 통일신라주거지 수습조사 보고, 1995, 호남고고학보 2.

표기했다. 아직도 그 터에 대한 유흔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향토사단 일대로 보는 설이 있을 뿐이다. 전남대 임영진교수는 금남로를 따라 조사된 우물지와 누문동 광주일고 운동장에서 통일신라 건물지를 찾았다. 2002년 광주읍성유허 지표조사보고서를 통해서도 광주시가지의 격자 가로망에 근거를 마련했다. 통일신라는 당나라 정전제(井田制) 도로망을 따랐다. 광주 가로망이 격자형인 것은 무진도독성과 관련될 수 있고, 조선시대 읍성은 그 도로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김광우교수도 무진도독성의 160m 격자 시가지 일부에 석성을 쌓은 것이 광주읍성이라고 했다. 백제 때 무등산에 성을 쌓고 백성들이 믿고 평안히 살면서 무등산곡(無等山曲)을 불렀다고 한다. 고산자의 대동지지 성지편에는 무등산 고성이라는 백제 때 성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1926년 일본인이 쓴 광주군사에는 척현성지(尺峴城趾)가 나온다. 읍성이 아니고, 산성일 것으로 보고, 고려 건국 또는 그 이전에 축조한 것으로 보았다. 1989년 잣고개 일대 성터를 조사한 뒤, '무진고성'이라는 두 권의 보고서가 출간됐다. 지금까지도 이 성터의 성격이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도독골'이라는 땅이름이 남아 있다. 생룡동 뒷산에는 우치산성(牛峙山城)으로 여겨지는 토성 흔적이 보인다.

광주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고려 태조23년(940년)에 무주를 광주로 개칭하면서 부터인데 이 때부터 광주읍성이 축조되어 있지 않았나 하고 여겨지며, 이를 근거로 몇몇의 책자에서는 '읍성이 축조되어 완벽한 지방 고을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sup>5)</sup>라고 표현되어 있다.

광주읍성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기록은 조선 초기 세종14년(1432)에 편찬되어 "세종실록"에 부록으로 편입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인다. 그 내용은 '읍성은 둘로 쌓았고 둘레가 972步이다' 라는 성의 현상에 관한 지극히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을 뿐 연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후의 여러 지리지(地理誌)들, 예컨대 중종25년(1530)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영조33년부터 41년 사이(1757-1765)에 편찬된 "여지도서", 고종 대(1879)에 이루어진 "광주읍지" 등 여러 지리지에서도 모두 비슷하게 '읍성은 둘로 쌓았는데 8,253척이고 문은 네 곳에 있는데 동은 서원문(瑞元門), 남은 진남문(鎭南門), 서는 광리문(光利門), 북은 공북문(拱北門)이라고 불렀고, 여장(女堞)과 못은 없고 우물은 100곳(또는 31곳)이다' 라는 내용만이 나올 뿐이다.<sup>6)</sup> 특히 1924년 판인 "광주읍지"에는 둘레를 8,253步라고 기록되어 있어 步와 尺이 다르나 이는 尺의 혼돈이 아닌가 한다. 일반적으로 읍성의 구조물인 옹성이나 적대(敵臺), 치성(稚城), 포루(砲樓), 각루(角樓)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같은 시설물들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872년에 제작된 "전라도지도"에 나타난 '광주목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성곽은 아사(衙舍)나 동헌(東軒)을 핵으로 하는 정방형 모양의 평면과 4개의 성문을

5) 건축문화의 해 기념 학술 심포지엄 "광주건축 100년의 회고와 전망", 김지민,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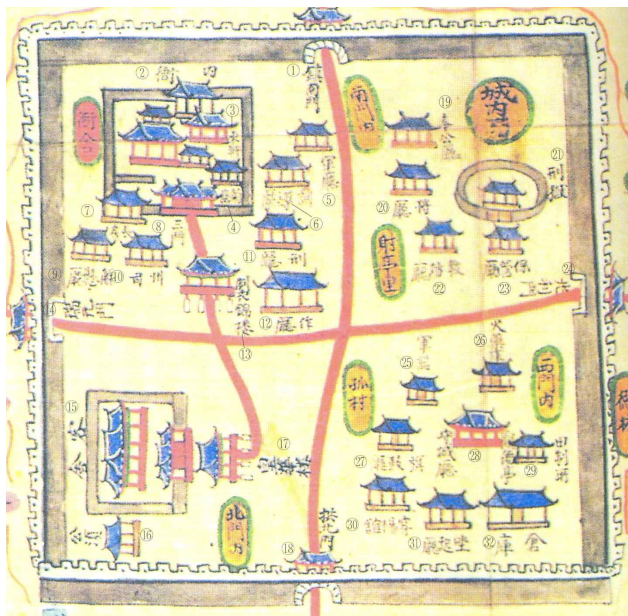
6) 김동수, 광주읍성의 연혁, 광주읍성유허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2002.

갖고, 그 외측은 해자(壕子)로 둘러싸여 있었다. “광주읍지”에 의하면 4개의 성문 외에도 공북루라는 이름의 누문이 같은 이름의 북문(공북문) 밖 ‘二里’ 지점에 있었고, 남문 밖 ‘300미터’ 지점에 홍살문이 있었다고 한다. 북문 쪽의 해자는 농업용 관개수로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수원인 조참보(光州川)의 물을 읍성 북쪽의 넓은 들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sup>8)</sup>

조참보<sup>9)</sup>에는 천어(川魚)와 잉어 등 물고기가 많아 광주시민의 영양보급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경양방죽과 함께 광주지역 농민의 생활의 원천이 되어 온 것이다. 이 조참보는 서쪽 성곽의 일부와 북문을 경유하는 북쪽 성곽을 완전히 싸고돌아 시민관 및 구역일대의 전담과 경양방죽에 이르기까지 계림동 거의 전역에 걸쳐 수리(水理)의 원천이 되어 왔다. 또한 여름철엔 이 조참보의 수변에 고목이 늘어 있어 광주시민의 유일한 납량지(納涼地)가 되었다.

### 가) 성내의 공간구조

광주읍성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건축물들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성내의 주요 건축물로는 관아(官衙)와 객사(客舍), 지방 사족(士族)들의 좌수(座首), 별감(別監)이 집무하던 향청(鄉廳)과 향사당(鄉士堂), 향리들의 집무처인 질청[作廳], 군청(軍廳), 옥(獄)과 훈련청, 관아에 예속된 관속들의 거소인 통인청(通引廳), 관노청, 사령청, 여러 용도의 무기나 물건을 수납, 보관하는 창고로서 군기청(軍器廳), 대동청(大同廳), 휴식과 풍류 및 손님접대를 위한 누각과 정자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여러 건물들의 유적은 오늘날 전혀 전하지 않아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고 다만 고문헌의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그림 4> 광주읍지(1872년)의 광주읍성 부분

에는 목사의 집무처인 동헌과 집사청(執事廳), 선화당(宣化堂) 그리고 정문인 황화루

7) 김광우, 광주읍성의 지적, 광주읍성유허 지표조사 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2002. 여기에서 조참보를 조탄보(棗灘汙)라고도 한다.

8) 광주시광역시 광주시사 2권 p.182.

9) 최윤상, 광주60년사<13회>, 새전남, 전남공론사, 1972, p.115.

10) 김동수, 앞의 책, p.43.

(皇華樓)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sup>11)</sup> 일본에 합병된 후 광주군청, 광주면 사무소로 이용되었으나 훗날 모두 헐리고 말았다. 이 객사부근에 희경루가 있었다고 하나 과거 공북문 밖에 공북루가 있고 그 곳에 희경루가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사유로 객사주변으로 옮겨 왔는지 알 수 없다.

구)광주일보사옥과 현)전남도청 사이에 있었던 아사는 중심건물 즉 동헌인 하모당(何暮堂)이 객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제초(1911년경) 현)도청의 입지가 결정된 이래 도 경무부와 일본군수비대가 1930년경 무덕전을 지어 회의장 및 무술훈련장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2001년까지만 해도 무덕전 경내에 전남지방경찰청 장비계로 사용하는 2층 벽돌조 건물이 있었는데 광주시에서 소공원을 만들면서 철거하여 버렸다.

동헌자리는 1967년경 금남로 확장공사 이후 대부분 도청 앞 광장부지로 편입되어 버렸다. 동헌 옆, 구)무덕전 근처에 수령의 거처인 내아가 있었고, 향사당이라는 이름의 향청은 객사의 북쪽에 있었다는 읍지의 기록만 전할 뿐이다. 그 외에도 객사 북쪽에 희경루, 황화루의 동쪽에 봉생정 등 많은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경우 밖에 없다.

광주 읍성의 정문은 현)충장로 파출소 자리에 있었던 공북문이었고 그로부터 '2리' 전방, 광주일고 학생탑 네거리에 공북루(拱北樓)가 있었다고 전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산현 누정조에는 이미 사라졌던 공북루의 자리에 희경루(喜慶樓)를 건립했던 동기와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힌 신숙주의 글이 실려 있어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 무덕전(武德殿)

‘광산은 전라도의 거읍이다. 옛날에는 누각이 이 고을 북쪽에 있어 이름을 공북루라 했었으나 이미 허물어진지 오래이다. 이번에 태수 죽산 안철석이 부임하여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사를 다스리는 바쁜 다운데 틈을 내어 고을의 여러 원로들을 모아 놓고 물었다. “고을에 유람할 장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이요. 더욱이 광산은 이 도의 요충지로 사객이 벌 모이듯 하는데 막히고 답답하고 깊고 가리어 시원하게 해줄 길이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하니 모든 원로들이 말하기를 “넓고 밝고 시원스런 땅으로는 공북루의 옛 터만한 곳이 없습니다.”하였다. 그리하여 재목을 모아 집을 짓되 옛 건물보다 더 크게 지어 몇 달이 안 되어 완성되었다. 그 칸수를 세어 보면 남북이 5칸인데 동서가 4칸, 그 넓고 훌륭하기가 우리나라에

11) 박선홍, 광주일백년 1, 금호문화사, 1994, p.34.에서 발췌하였으나 객사 안에 동헌 등의 집무처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객사와 동헌은 별개로 존재하므로 이는 저자의 착오일 것으로 생각된다.

서 제일이었다. 동쪽으로는 큰길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긴 대밭을 굽어보며 북쪽으로는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또 동쪽에는 사장(射場)을 만들어 덕을 보는 장소로 삼으니 손님과 주인이 이제야 비로소 올라 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표 1> 광주 읍성내의 건물들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輿地圖書	光州邑志(1872년본)
건 물 명	客館  喜慶樓(在客館北)  皇華樓(在客館北)  鳳笙亭(在皇華樓東)	客館 鄉射堂(在客館東) 鍊武堂(再客館東) 喜慶樓(在客館北) 皇華樓(在客館北) 鳳笙亭(在皇華樓東) 北樓(城北門樓) 南樓(城南門樓) 西樓(城西門樓) 東樓(城東門樓)	衙舍 客館 鄉射堂 訓練廳 喜慶樓 皇華樓(在客館南) 鳳笙亭(今廢)  拱北樓(在州北五里) 笑嘖軒月小樓 (在衙舍西邊) 邑倉 軍器庫	衙舍何暮堂(在客館東) 客舍 鄉射堂 訓練廳 喜慶樓(在客舍北) 皇華樓(在客舍南)  珙北樓 笑嘖軒月小樓 (在衙舍西十步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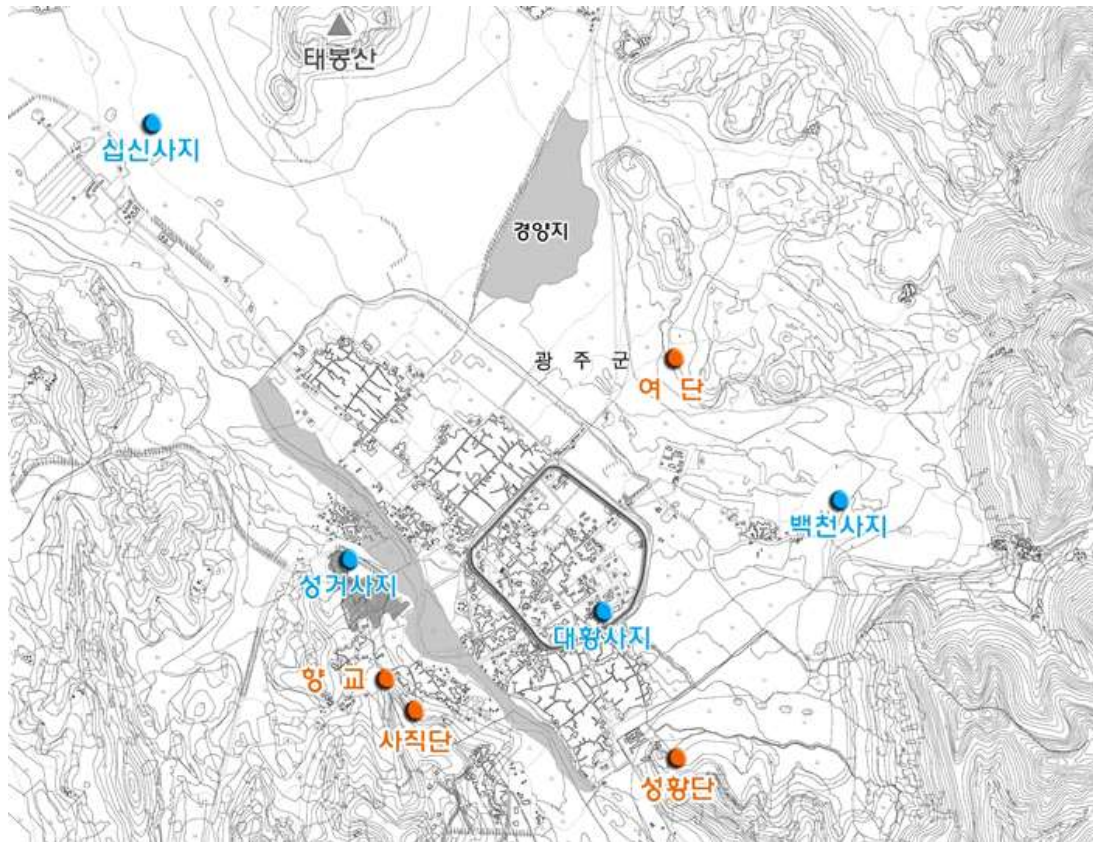
이 누문 앞, 현)광주일고에서 북동쪽으로 향하여 현)광남로를 끼고 있었던 마을이 ‘역촌’이었다고 하는데, 기록상으로는 누문 바로 옆 충장로 변에 보통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령이 새로 부임해 올 때 여기에서 식사도 하고 의관을 정제한 후 북문을 통하여 객사로 이어지는 “남북대로”를 따라 풍각을 울리며 입성하였을 것이다.

동문인 서원문은 동구 궁동의 옛 문화방송건물과 전남여고의 뒷담 부근이고, 서문인 광리문은 불로동에서 광주 미문화원이 있었던 곳으로 들어가는 네거리였다. 남문인 진남문은 남동의 옛 광주시청에서 전남대 의대병원으로 가는 삼거리 부근이라고 한다.

위의 지리지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주읍성은 조선시대를 통하여 광주목성(光州牧城)이거나 광산현성(光山縣城), 혹은 무진군성(武珍郡城)으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패망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읍성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하고 헐리게 되었다. 더욱이 한말의 의병활동이 더욱 활발해지자 일본군은 광주에 대대본부를 두고 1909년에 이른바 ‘남한폭도 대토벌작전’이란 작전을 전개하면서 광주읍성을 본격적으로 허물고 철거된 자리를 따라 도로를 개설하였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시가지가 형성되어 갔는데 오늘날의 충장로 2가, 3가 등의 상업중심지가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sup>12)</sup> 읍성의 철거는 1908년부터 1916년의 누문의 철거까지 8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하는데<sup>13)</sup> 성벽을 따라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이제는 그 형체를 찾을 수 없게 사라지고 말았

12) 송인성, 김광우, 「광주도시계획사연구」, 광주직할시, 1992.

13) 박선희, 앞의 책, p.34.



<그림 6> 옛 광주의 주요한 유적; 대항사지, 백천사지, 성거사지, 십신사지, 그리고 향교와 사직단, 여단, 성황단(유영국 도면)

다.14) 현재 부분적으로나마 도청부지의 뒤쪽에 남아 있고<sup>15)</sup>, 서측과 남측의 성벽 일부가 발굴조사<sup>16)</sup>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 나) 城 밖의 공간구조

광주는 풍수지리상으로 이무기가 용이 되어 여의주를 물고 하늘에 오르는 화룡승천의 형국이라 한다. 신안동에 있었던 태봉산(胎峰山)은 바로 승천하는 용의 입에 물린 여의주에 해당하는 산이었다. 한편으로 광주의 지세를 인체나 학에 비유하고 있는 설도 있다.<sup>17)</sup>

성외의 주요시설로서는 소위 3단1묘(三壇一廟)가 있었는데, 이는 사직단(社稷壇), 성황단(城隍壇), 여단(厲壇), 문묘(文廟)[향교]를 말한다. 사직단은 오곡의 풍성을 기도하는 제단을 뜻하고, 여단은 주인 없는 귀신 즉 맹수와 독충에 해를 입거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제단이며 성황단은 고을 전체를 위한 진호의 신단을 말한다.

14) 김동수, 앞의 책, p.46.

15) 광주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었음

16)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읍성」, 1997.

17) 나경수, 서해숙, 김지현, 광주읍성의 口傳과 민속, 「광주읍성유허 지표조사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2002, p.96.

먼저 사직단은 사직공원의 이름에서 그 유흔이 현재 남아있다. 사직단의 위치는 구)KBS광주방송국 옆, 구)동물원 정문 근처에 영귀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담장 안에 정방형으로 된 두 개의 단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sup>18)</sup> 바로 이 두 개의 제단에 각각 성신과 곡신을 위한 제물을 바쳤을 것이다. 사직단에서 이루어지는 사직제<sup>19)</sup>는 춘(2월) 추(8월) 2회에 걸쳐 있었다. 여단의 위치는 계림초교와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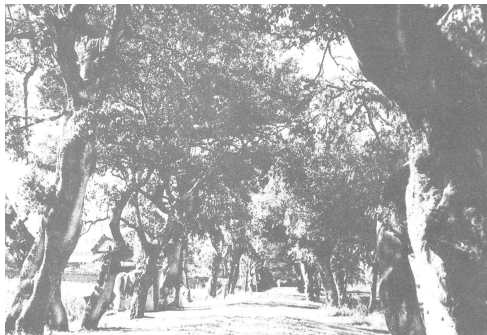


<그림 7> 광주향교 대성전

고교의 뒷산 언저리인 일명 경호대의 자리로 추정되고 있다. 성황단 역시 그 정확한 위치를 규명할 수 없으나, 현)조대의대병원 부근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文廟는 향교에 있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말한다. 물론 광주향교는 지방에 건립된 관학으로서 조선초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여느 향교와 마찬가지로 제향공간인 대성전과 교육의 공간인 명륜당을 비롯하여 동서무와 동서재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읍지에 의하면 향교는 원래 장원봉 아래에 있었다가 성내로 옮겼고, 성내가 저습하여 다시 성밖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향교가 성내로부터 성외로 이전한 것은 광주만이 아니라 다른 고을에서도 흔히 있었던 일

이다. 이는 조선왕조후기의 사회적 변동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한다.



<그림 8> 유동 일대의 柳林藪 (1917년)

역로는 전국을 이어주는 중요 도로였다. 이 길을 따라 적당한 거리마다 역 또는 원과 같은 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역에는 역마가 배치되어 있어, 관인이 이동하면서 역줄로부터 다음 역까지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누문에서 구 시청 옆 길을 따라 경양역에 이르는 길은 전주감영 또는 도성인 서울로 통하는 중요 역로로 이

어졌다. 이 길은 지금은 매립되어 없어져버린 경양방죽<sup>20)</sup>의 독을 이루기도 하였는데, 독길 양편에 늘어서 있던 "임수(林藪)"는 현 유동, 임동 일대에 있었던 유림수에 버금가는 가로숲을 이루었다고 한다.

평나무, 귀목나무 등 80여종의 수목이 밀집한 "유림수(柳林藪)"는 현재의 누문동에

18) 1924년 사직단 주변에 일본 황태자 결혼을 기념하는 신 공원을 조성하여 1943년 조선시가지 조성 계획령에 의해 원래부터 있던 사직단에서 유래한 '사직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재구성되었다. 이후 1960년대말 사직동물원이 구성되면서 사직단이 헐리었다가 1994년 4월에 사직단을 다시 복원 하였다.

19) 1894년 제사의 폐지와 함께 중단되었다가 1994년 사직단 복원과 함께 부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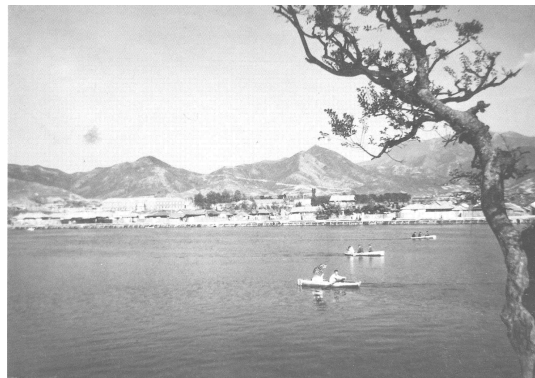
20) 경양방죽은 세종 22년(1440)년 김방에 의해 만들어져 520여년간 지속되다가 1940년 신무(神武) 기원 2600년 기념사업으로 전)광주상업고등학교와 경호대 일대를 헐어 그 토사로 1차 매립을 하여 일본집단 거주지를 형성한다. 이후 해방되어 1966년 태봉산을 헐어 2차 매립을 하여 전 시청사 일대가 조성된다.

서 유동과 임동을 거쳐 일신방직 앞으로 난 길 양옆에 조성되었다.<sup>21)</sup> 현재 유동이니 임동이니 하는 동네 이름도 모두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거리를 버드리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이 숲은 1968년에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모두 베어버렸다.

경양방죽은 세종22년(1440)에 만들어져 500년을 이어온 인공호수였다. 지금의 광주고등학교와 계림초등학교 앞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면적은 약46,000평, 수심 10m의 논물대기 용으로 만들어져 나중엔 유원지로까지 발전되었다. 2~3백년된 거목들이 우거지고, 팽나무, 왕버들나무, 수양버들나무가 즐비해 광주시민의 휴식과 낭만공간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방죽에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저수지 기능을 상실하였고 1966년에 이르러서는 경양방죽이 수원지 기능이 사라지고 오염원 제거와 도시확장을 이유로 매립공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금남로 확장 등 도시발전기금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신안동 태봉산을 헐어 그 토석을 일부 판매하고 일부는 경양방죽을 매우는 데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의 계림동 일대의 시가지가 조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생긴 자금으로 금남로 일대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9> 신안동에 있었던 태봉산



<그림 10> 매워지기 전의 경양방죽

경양방죽 위쪽 현 서방시장 부근에 경양역이 있었고 이에 딸린 역촌도 있었다. 역로가 관인의 육상교통을 위한 시설인 반면, 세곡의 운반은 주로 수운을 이용하였는데 세곡의 집결지 또는 중계지에는 창이 설치되었다. 광주목의 서창(西倉) 및 동창(東倉)이 바로 이 경우이다. 서창은 극락창(極樂倉)이라고도 하였는데 극락원, 극락시 모두 동일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한다. 서창, 동창과는 별도로 성내에는 읍창(邑倉)이 있었고 읍사방(邑四坊) 및 각 면에는 토고(土庫)가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는데, 모두 사창(社倉)이라고도 하였다.

1896년에 지방제도의 개혁에 따라 전라남도관찰부가 설치된다. 이로써, 대한제국시대의 고지도에 표시되어 있듯이, 광주목의 동헌이 전라남도 관찰부 "영청(營廳)"이 되고 광주군의 청사 "동헌"은 객사의 한 부속건물에 설치된다. 남문을 통하여 성내

21) 최윤상, 광주60년사<13회>, 새전남, 전남공론사, 1972, p.116.

박선홍, 광주1백년 2권, 금호문화사, 1994, p.240.



로 들어오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지고 각각 (원)동헌과 객사로 향하였다는 것을 지적원도(19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시(場市)는 조선후기에 발달한 것이다. 광주의 경우 읍시(邑市)로서는 매월 음력 2, 7일에 서는 큰 장과 4, 9일에 서는 작은 장이 있었다. 둘 다 광주천의 유역변경으로 형성된 모래밭 위에 있었는데, 큰 장은 공수방(公須坊)에 속한다 하여 공수시(公須市), 작은 장은 부동방(不動坊)에 있다 하여 부동시(不動市)라고도 하였다.<sup>22)</sup>



<그림 11> 구한말 광주천변의 시장 (차중순교수 제공)

## 2) 근대 도시로서 광주면 : 1896~1919년

### 가. 광주면의 성립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개국하게 된 조선은 신문물의 유입과 새로운 사조의 도입으로 급격하게 전통적인 봉건체제가 무너져 가고 있었다. 구조적 모순을 안고 등장한 조선봉건사회는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흔들렸으며 17-18세기에 들어서면서는 농촌사회의 동요와 상공업의 발달, 그리고 평면의식의 성장으로 봉건질서 체제가 붕괴되어 갔다. 특히 실학사상의 등장은 비록 집권양반들로부터 배척당했지만 사회발전을 이끌어 갔고 개국과 함께 개화사상으로 변하여 근대화추진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1895년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은 지금까지의 8도제를 폐지되고 23부제를 실시하였다. 종전의 대.소.읍은 모두 고쳐 군으로 하고, 군에는 군수 1인씩을 두었으나 이듬해 1896년 8월에 부제를 다시 고쳐 전국을 13도.7부.1목.331군으로 나누었다. 또 다시 군을 면으로 나누어 면장을 두었는데 당시 광주군은 41개의 면으로 형성되었다. 갑오경장(1894)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도시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 읍성도시 광주는 조선왕조 초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 밖 천변에 큰 장과 작은 장이 번갈아 서고, 그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된 반면, 원래 읍사방의 하나였던 편방(片坊) 쪽은 인가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서문 밖 작은 장[不動市] 주변의 주민구성은 갑오경장이후 광주의 도시 개조적 변화를 상징하게 되는데 구) 황금동 동명호텔자리 지역 보작촌에 일본인의 정착이 시작되었으며 1915년 최초의 독립된 면사무소를 조영하였던 곳도 이곳이었다.

근대도시 광주의 형성은 1896년 전라남도관찰부의 설치와 1897년 목포의 개항을 기점으로 근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목포의 개항은 대한제국의 개방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거점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수요가 강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문물의 매개자인 서양인 그리고 일본인의 도래를 용이하

22) 광주시사 2권, 184쪽.



<그림 12> 1899년으로 추정되는 <광주목중기>에는 현 무등극장 부근에 자리한 광주객사인 광산관은 총9칸으로 구성되었는데 부지는 2천평, 건평은 68평 정도로 추정됨.

게 한 것이었다.

한국정부에게 협조적이었던 일본정부는 러.일전쟁(1904) 이후 1906년 광목간 '신작로'공사가 1907년 광주교 가설공사와 더불어 북문까지 1차 준공되고, 이어 1912년까지 읍성을 전면 철거하게 된다. 이즈음 보듯이 광주는 목포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군사적, 경제적 연결통로의 성격을 지닌 도시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개화파 관료 윤웅렬이 초대관찰사로 부임하고 직제의 변화와 함께 종래의 동헌에 영청(營廳; 도청)이 설치되고, 종래의 객사에 광주군청, 그 밖에 경무청, 지방대, 우체사, 전보사 등 신설된 관아가 성안에 건축되어 가게 된다.

1909년의 광주경찰서 공사는 일련의 '신건축'을 여는 신호였고, 1912년 말에는 해체된 성벽자리 및 그 내부에 새로운 격자가로망이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술의 거리'라고 부르는 도로도 그 한 부분이었다. 우편국에서 북문터에 이르는 북문통[충장로]가 상업 및 금융 중심가로 자리 잡고, 서외리[황금동]에 일본식 유곽이 설치된 것도 이 즈음이다. 러.일 전쟁 이후 황금동에 터를 잡은 일본인에게 성안 토지



<그림 13> 광주경찰서 (1947년)

※ 경찰서는 본래 충장서림 자리에 있다가 1930년대 중반(현) 동부경찰서 위치로 이설(위 사진은 이설 후 건물임)

이후 황금동에 터를 잡은 일본인에게 성안 토지

가 불하되면서, 현)중앙초등학교 터에 일본인소학교를 신축이전하고, 현)도청자리에 도청을 신축함과 더불어 주거지가 현 예술의 거리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였다. 향교 뒷산에는 공원 및 신사가 조영되었고, 1등도로 광목선은 북문터에서 다시 서울을 향하여 임동 쪽으로 뻗어나갔다. 임동에는 농업교육 및 실습시설이 설치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누문은 1916년 철거되었다.<sup>23)</sup>

1912년 당시 광주면은 성내면, 공수방면, 기레방면, 두방면의 4개면이 공동으로 사무처리를 했고 경비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당시 동리는 성내가 5개리, 성외가 16개리로 되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도처에 초가집이 둘러싸이고 길들은 얽혀 황혼에는 온돌의 연기가 자욱했었고, 누문을 철거하고 성벽을 붕괴한 동시에 탄탄한 넓은 도로가 동서를 관통하고 점차로 시가구역을 정리하는 한편 초가집을 뜯고 와가 또는 양철 지붕인 일본풍 가옥이 계속 건축되어 가고 그중에서도 본정통에는 일본인의 상포(商鋪)가 즐비하게 되었다고 일본인 키따무라(北村友一郎)가 쓴 기록에 나타나 있다.<sup>24)</sup>

다시 1913년 조선총독부는 전국의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그중 광주군에 속한 각면은 광주면<sup>25)</sup>을 비롯 지한면, 석곡면, 우치면, 본촌면, 비아면, 하남면, 임곡면, 송정면, 동곡면, 서창면, 대촌면, 극락면, 서방면, 효천면 등 15개면이었다.

광주면의 경우 4개면을 기본 골격으로 궁정통, 동문통, 서문통, 남문통, 북문통, 동광산정, 서광산정, 서성정, 북성정, 중정, 화원정, 부동정, 금정, 서남리, 금계리, 향사리, 성저리, 수기옥정, 누문리 등 총 19개 里.町.通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이 이같이 행정구역을 폐합 조치한 것은 통치의 집약적 단일화로 소수의 인원 배치만으로 행정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그들의 행정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917년 면제 공포로 지정면과 보통면을 구분했는데 1917년 10월 면제시행령에 의해 광주면을 지정면으로 하였다. 그 당시는 전국에 24개 면을 지정면으로 지정했으나 1923년에는 17개 면을 증가하여 41개 면으로 수를 늘렸다.

지정면과 보통면의 차이점은 일본인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가로나 점포가 시가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지정면은 주로 상공업지로 발달하여 공공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호구 1천 5백호 이상이 되어야 했고, 그 중 1/2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협의회원 선거권을 가진 자가 수백명 이상이어야 했다. 그리고 또 면 부과금이 매 호당 평균 7원 이상의 부담력을 가진 곳이 아니면 지정면의 자격이 없었다.

광주면이 지정면이 되면서 부터 마을의 명칭이 일본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정(町)”이란 단어가 그것이다. 또한 지정면이 된 후에는 이들 명칭을 모두 “통(通)”[토오리] 또는 “정(町)”[초오 또는 마치]으로 개칭하게 하였다. 일부지역은 “里”로 혼용하기도

23) 건축문화의 해 기념 학술 심포지엄 “광주건축 100년의 회고와 전망”, 김광우, 1999.

24) 광주광역시, 광주시사 2권, p.85. 「광주지방사정(光州地方事情)」이라는 기록임.

25) 1913년 성내면, 공수방면, 기레방면, 두방면 4개의 면을 합쳐 광주면이라 명함

했다.

### 3). 광주면의 시가경영(1920-1930)과 도시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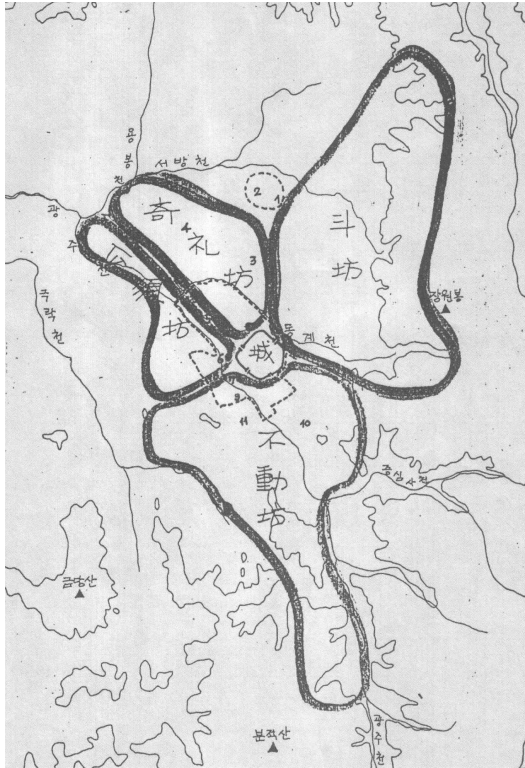
기미년 3월 독립만세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광주에서도 장터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터져 나온 만세소리는 그간 억압된 광주사회를 뒤흔들기에 충분하였다.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수비대 병력을 광주를 비롯한 전국각지에 파견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선총독부는 그 이듬해인 1920년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한 지방관제의 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이 무렵에 광주의 도시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면 아무래도 도시계획법의 출현에 의한 시가계획, 면3대계획, 시가구획정리 등이라 하겠다. 이들을 구체화한 것들로 하수도설치, 하천개조, 시장정비, 광송간 철도부설 등을 들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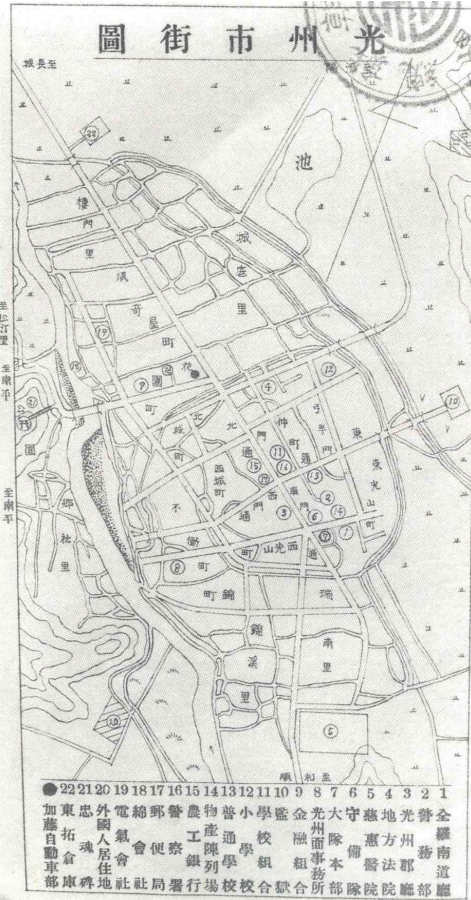
1919년 이후 읍성도시 광주는 일본의 도시계획법의 개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며 1920년을 전후하여 총독부의 지방도시정책도 변화되어 가게 된다. 1910년대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필요에 입각하여 전국토를 개조하기에 급급하였고 이를 위하여 각종 토목사업을 직접 경영하여야 했던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였고 각종 도시적 시설경영의 주체를 부 및 지정면 위주로 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일본의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 및 “보조”를 통하여 전국적인 통제를 기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해 나갔다.<sup>26)</sup>

---

26) 광주광역시, 광주시사 2권, p.194.



<그림 14> 광주읍성과 4방(坊)



<그림 15> 광주시가도 (1917년)  
 ※ 광주지방사정(1917년)에 수록된 내용

<표 2> 1917년 광주면 지정 이전의 마을 명칭

※ 현 위치는 대체로 그 부근을 표시

당시면	마을명칭	현 위치	당시면	마을명칭	현 위치
부동방면	서남	서석동	기례면	성지	금남로3,4가, 공동
	방수	학동		후리	
	호연	학동		보통	금남로4가, 대인동
	금계	학동		누항	
	보작	황금동	공수방면	상촌	충장로 3,4가, 양동
	서외	황금동, 불로동 일부			
성내면	남내	광산동			
	서내	광산동			
	북내	금남로 1가			
	사정	광산동, 금남로1가, 충장로1가			
	고촌	대인동			

<표 3> 1917년 광주면 지정 이후의 마을 명칭

바뀐 명칭	현 위치	바뀐 명칭	현 위치
동문통	금남로 2가, 궁동, 대의동 일부	금정	금동 일부
서문통	금남로 1가, 황금동, 충장로 1가 일부	중정	금남로2가, 궁동 일부
남문통	충장로 1가, 광산동 일부	궁정	궁동
북문통	충장로 3가 일부	서남리	서석동 일부
서광산정	충장로1가, 황금동, 광산동 일부	금계리	학동, 금동 일부
동광산정	대의동, 금남로 1가 일부	향사리	사동, 구동 일부
서성정	황금동, 불로동 일부	성저리	대인동 일부
북성정	금남로1가, 충장로1가 일부	누문정	북동, 누문동 일부
화원정	호남동 일부	양림리	방림동, 양림동 일부
부동정	황금동, 불로동 일부	교사리	서동, 구동 일부
수기옥정	수기동, 충장로5가 일부	원촌리	동명동, 서석동 일부

1920년에 실시된 면의회선거전에 나온 이슈와 콜레라의 만연에 의해 '대광주건설'이라는 과업이 있었으나 실제로 광주시(광주면)가 '시가계획'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25년 1월 일본에서 차출 되어온 倉品益太郎<sup>27)</sup>이 광주군수를 사직하고 광주면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다. 그는 광주군수 재임시절 1920년 8월 광주면의 시가계획을 지도하였는데 1925년에는 그 계획을 실제로 경영하는 광주면의 사업 책임자가 되었다. 그의 수완에 힘입어 광주면은 1925년 면 정문을 정하고 면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였으며, '시가미화정화 면3대계획'<sup>28)</sup>을 수립하여 1926년 이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대대적인 토목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시가미화정화'를 위한 '면3대계획'(1925)과 '시가구획정리'(1930)을 통해 읍성도시였던 광주가 현대의 도시구조로 가는 기본 골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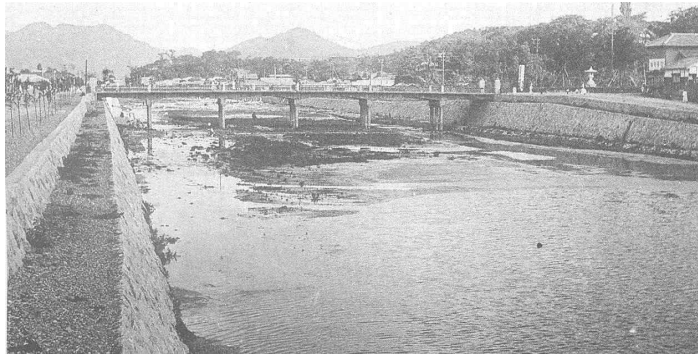
가) 하수도 설치 : 1926년부터 192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국고의 보조로 시행한 광주 최초의 근대적 하수도시설 공사였다.

나) 하천 개조 : 사직공원 앞 철부 금교 부근에서 양동시장 부근까지의 광주천 폭을 좁혀 직선화하고 천변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몰될 하천용지 및 토지를 매립하고 새로 구획하여 시설용지 및 일반대지로서 분양하려는 광주 최초의 신시가 지 개발사업이었다. 하천정비사업은 또한 일등도로인 광목선(光木線)을 철도역(현 구역)과 직결하기 위한 "신광주교"(현 광주대교) 교량가설공사 및 구역전통(당시의 수기옥정 부분)의 도로신설공사와 묶여 있었다.

27) 일본의 관료로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히로시마에서 차출되어 전라남도 배속된 도내 각 군의 서무주임 및 군수를 역임하다 1925년 광주면장으로 취임하여 1929년 9월 면장을 사임하고 일본으로 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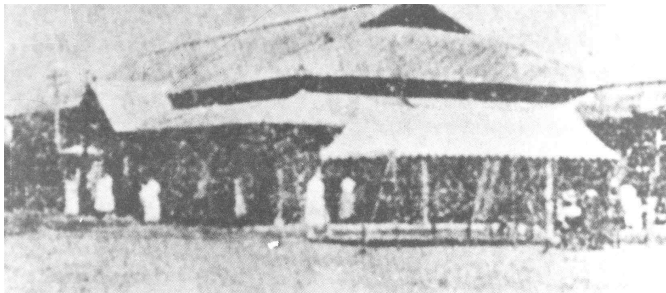
28) 면 3대계획이란 하수도설치, 하천개수, 시장정비 등이다.

하천정비사업은 또한 도로계획을 통하여 공원계획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1924년 광주면은 일본왕세자의 결혼을 기념하는 사업으로서 현 사직공원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지정하여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구강공원(현 광주공원)의 시설을 확장하여 두 공원과 천변 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 일주도로를 계획하였다. 이 두 공원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교량 및 계단 등의 시설계획도 당연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공설운동장은 현 양동시장자리의 매립지에 1931년 4월에 시설되어 이후 주로 야구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16> 철근콘크리트로 개량된 광주교 (1935년)

다) 시장 정비 :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장이 없어지고 대신 현 사동(당시 鄉社里)의 매립지에 “광주시장”이 설치되었다. 1921년 초 “대광주계획”이 “시장병치정리(市場併置整理)”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직후였던 당시에는 이것이 “연병장” 내지 “군영”의 설치와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공설운동장”의 설치로 변화하였을 뿐이다. “광주시장”은 계획당시의 명칭으로서, 그 일대의 동명이 1930년 4월 시가구획정리에 따라 “향사리”에서 “사정(社町)”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림 17> 광주역사 (1931년) 「광주요람」 사진

“사정시장(社町市場)”으로 불리게 된다.<sup>29)</sup>

이 무렵, 광주도시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준 일은 호남선철도공사 이래 광주의 숙원이었던 광송간 철도부설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유철도 호남선 송정역에서 분기하여 신설 광주역

(현 구역)에 이르는 남철선(南鐵線)이 1922년 7월 개통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광주를 비롯한 전남 각지에 철도기성회가 조직되는 등, 새로운 남철선의 노선문제를 둘러싼 지역간의 경쟁이 전개되고 우여곡절 끝에 광주역(구역, 현)동부소방서)에서 분기하여 신설 신광주역(후에 남광주역으로 개칭)을 통과, 광주면의 시가지 외곽을 남회하여 여수항에 이르는 남철(南鐵) 광려선(光麗線)이 건설되어 1930년 가을 개통되기에 이른다.

그 후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게 된다. 이 계획령은 해방후에도 사용을 하다가 1962년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

29) 광주시사 2권, 199.

가 된다. 1939년 광주에서도 최초의 시가지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였는데, 경양방죽 매립을 통한 인구 15만명 수용 토지 확보, 광주역의 중흥동으로의 이설, 광천동 현) 기아자동차 공장 일대에 공업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무렵 광주는 1930년 광려선이 개통되어 빠른 속도로 인구성장을 하게 된다. 아직까지 광주는 근대도시로서의 역량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인구 증가는 빈민층의 증가를 가중시키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시빈민의 상당수는 도시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시가지에 가까운 광주천 및 경양방죽 등 주변저습지에 움막치고 사는 이른바 “세민부락”이 형성되게 된다. 즉 도심에서는 일본 상인들이 주로 살고 도시외곽에는 한국인 빈민들이 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광주가 1940년 이후로 전주와 군산, 목포 등을 제치고 전라도 제1의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은 물론 광주와 여수를 연결하는 철도인 광려선의 개통에 힘입은 바 크다. 뿐만 아니라 광주는 일제에 의한 호남통치의 거점도시로서 경영되었는데 그 예로 구한말 광주에 설치된 재판소의 관할구역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 전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당시 의병항쟁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전라남도였고 그 관찰부 소재지가 광주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광주에는 호남을 대표하는 사범학교도 설치되었다. 이로써 광주는 대구, 평양에 버금가는 제3의 지방 도시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리고 광주비행장의 개설(1935)은 광주의 군사기지적 성격을 강화시켜줌으로써 훗날 6.25전쟁을 전후하여 전교사[상무대]가 입지하는 기틀이 마련되기도 했다.<sup>30)</sup>

---

30) 김광우, 건축문화의 해 기념 학술 심포지엄, “광주건축 100년의 회고와 전망”, 1999.



**발표 3 :**

**프랑스의 도시 역사문화경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

**이 영 미**

(주)집합도시 대표이사)



# 프랑스의 도시 역사문화경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

이영미(㈜집합도시 대표이사)

## 1. 들어가며 \_ 도시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인식 변화

역사문화경관이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니는 도시의 경관을 의미한다. 이는 오랫동안 내려온 유무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개별적 가치보다 집합적 가치를 지니는 역사적 건축물들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형성된 도시 조직과 그 주변까지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오늘날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도시의 진화와 함께 더불어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20세기 초,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개별적인 건물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념비적인 것들에 한정되었다. 점적인 기념물 위주의 보존은 주변부의 개발과 환경의 파괴를 저지할 수 없게 되면서 전체적인 도시환경은 훼손되었다. 이후 역사문화유산 보존 정책은 면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더 나아가 도시의 조직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지역 또는 지구로 확대하여 관리하는 체제로의 인식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역사문화유산을 도시적 차원에서 보호 및 보존하려는 흐름 속에서, 프랑스 보존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사적 환경과 경관의 보존문제를 일찍부터 통합적으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1960년대 이후 도시 역사문화경관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 재건과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시행된 대규모 철거와 재개발에 의해 역사적인 장소가 많이 남아 있던 도심부가 와해되자 이에 대해 반성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도시의 역사적 가치에 주목하는 '도시적 역사문화유산(patrimoine urbain)' 개념이 일반화되었다.<sup>1)</sup>

프랑스의 역사학자 오드러리(Audreie, 1997)<sup>2)</sup>는 보존 지구 지정을 통한 보존과 자연 지역 보호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호와 보존이 아닌 '관리'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말한다. 보호와 보존은 과거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정화하는 수동적 행위라면, 관리는 가치 있는 것을 보존하고 손상된 부분을 정비하여 새로운 기능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프랑스는 역사문화환경 증진을 위한

1) 임유경 외 2인, 파리시 도시계획 제·개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문화경관 개념 확대와 도시 계획적 관리수단의 변화, 한국도시계획학회지 12(6), 2011.12, p.44 수정인용

2) Dominique Audreie는 프랑스 역사학자로서 몇 년 동안 문화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저서로는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념,(1998)」이 있다.

정책의 전략 변화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정책은 면단위에서 그 영역을 보다 넓혀 점차 도시 및 그 이상의 광역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호' 위주에서 '가치 부여'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다. 게다가 2010년에는「그르넬 환경법II」(Grenelle de l'Environnement)의 제정에 의해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역사문화도시경관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 2 프랑스 역사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변화

### 2.1 역사적 기념물 및 자연문화유산과 관련한 법률의 시작

프랑스에서는 1887년 3월 31일 역사적 기념물(monument historique)<sup>3)</sup> 보존에 관한 첫 번째 법률(Loi du 30 mars 1887 sur la conservation des monuments historiques)이 제정되면서 역사문화환경을 관리대상의 틀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1913년 12월 31일에는 1887년에 제정된 법률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새롭게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법률'을 발표하였다. 이때 문화재를 중심으로 보존하는 '점'적 보존이 아닌, '면'으로서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난 시기로서, 이때 지정된 역사적 기념물의 시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500m 범위내의 주변지역까지 효력을 미치도록 제정하였다. 1914년 7월 10일에는 문화유산 매입을 위한 국가재정마련에 관한 법률(Loi du 10 juillet 1914 portant creation d'une caisse nat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 et des sites)이 제정되었다. 1930년에는 자연 문화 경승지에 대한 보호 강화 측면에서 '자연기념물의 보호 및 예술적, 역사적, 과학적, 전설적, 경관구역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2.2 도시의 관점으로 확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에 관한 법률

1940년 독일과 1944년 45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대규모 파괴가 이루어졌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광의 30년(Trente Glorieuses)'이라는 경제 성장 속에서,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도시의 파괴가 지속되었다. 이에 1962년 8월 4일,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는 도시의 일부를 보호하는 '보존지구에 관한 법률 (loi sur les secteurs sauvegardés)'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이 법률은 말로법으로 불린다. 말로법은 미적, 역사적 측면에서 보존, 복원, 가치부여를 고려한 도시 내 '보존지구(SS, secteurs sauvegardés)'를 지정하여, 역사적 기념물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가진 건조물과 도시조직을 '지구'단위로 확장하여 면적 단위로 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역사문화환경을 단순히 면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삶속에서 함께 유지하고 보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 2.3 도시.사회.환경 문제를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

---

3) 프랑스에서 역사적 기념물(Monument historique)이란,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대상으로 법률적 시행규칙에 의해 지정된다. 지역 단계에서 가치 있는 동산·부동산을 위한 보호 단계로는 '역사적 기념물로 등록'된 것과 국가적 측면에서 가치 있는 보호해야 할 동산·부동산을 위한 보호 단계로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한다.

1983년 1월 7일 '지방분권화의 법률(la loi de décentralisation)'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운영하는 체제인 '건축·도시·문화유산 보호지구(ZPPAU, Zone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가 도입되었다. 1993년 1월 8일에는 경관법 제정에 따라 '건축·도시·경관 문화유산 보호지구(ZPPAUP, Zone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로 개정되었다. 지방분권화 시행과 함께 중첩되는 역사적 기념물 주변 지역 보호에 대한 관리를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률 제정으로 인해 기존 보존해야 할 역사문화유산이 경관까지 그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보존 대상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2000년 12월 31일에는 '도시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SRU, Loi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제정으로 도시재생이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도시 연대와 재생 법률은 도시 문제에 대한 사회, 경제적 접근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 관리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있어서 대상 지역의 삶의 질과 지역 주민의 참여에 의한 일상생활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2010년 7월 12일 「그르넬 환경법 Ⅱ」(Loi Grenelle II)에 의해 도시계획관련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1983년부터 약 3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제도인 ZPPAUP는 '건축·문화유산 가치부여구역(AVAP, Aire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건축역사문화유산 보존지역을 기존의 지구 개념에서 구역 개념으로 공간적 범위가 확장된 제도로써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과 연계되어 고려된다.

### 3.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제도

#### 3.1 말로법(Maloux) 제정에 의한 보존지구(Secteurs sauvegardé. SS)

##### 1) 제정 배경

1962년에 역사적 도심지역의 보존을 위한 지구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는 법안제정을 위한 모두 발언에서 "보존지구(SS) 지정 목표는 문화유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1962년 8월 4일에 제정된 '말로법'은 프랑스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부여에 관한 법률이며,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첫 번째 법률이 되었다. 말로법에 따른 보존지구(SS) 지정의 가장 주된 목표는 대상지 보호와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도시계획법전(Code de l'urbanisme)에 의해 보존지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이것은 재정법(Code de financement)과 연계되어 세제혜택을 지원받게 되며, 건축행위규제 및 보존지구 내 주거용도 건축물을 현대 생활방식에 적합하도록 개보수 지원, 도심에 젊은 인구층의 거주를 유도하고자 시행되었다.<sup>4)</sup>

4) 최민아, 지방분권화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제도변화 연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제 48권 제 3호,

## 2) 보존지구 수립 절차 및 특징

프랑스 내 보존지구(SS)로 지정된 지구는 총 107개(2015년 12월 31일 현재)이다. 보존지구는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 보존지구계획(PSMV, Plan de sauvegarde et de mise en valeur)이 수립된다. 이 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되는 지역도시계획(PLU)의 상위계획의 위상을 지닌다. 보존지구계획(PSMV)은 지구 내 모든 건물이 보존지구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구 내 건축물을 복원 및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 3.2 건축·도시·경관 문화유산 보호지구(ZPPAUP<sup>5)</sup>)

#### 1) 제정 배경

프랑스는 지방분권화의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다수 이양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던 프랑스의 문화자산은 1982년 지방분권화로 지자체 관할이 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분권화가 시행되기 이전, 역사문화환경과 관련된 지구는 도시계획법전 L 313-1에 의해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왔으나 이후,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건축 및 도시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Zone)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역사문화 유산 및 주변 환경을 면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역사적 기념물과 같은 문화재가 없더라도 사회적·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건축도시 문화유산 보호지구'(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et urbain)가 도입되었다.<sup>6)</sup> 이후 1993년 경관의 보호 및 가치 부여에 관한 법률로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ZPPAUP가 '건축·도시·경관 문화유산 보호지구(이하 ZPPAUP, 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s)'로 개정되었다. 경관법은 우수한 경관적 특성을 지닌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호 및 가치부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서 이후, 2000년 12월 8일 중앙정부차원에서 경관계획 및 심의를 담당하는 국가경관위원회(Conseil national du paysage)가 설립되었다. 경관법 제정 이후에도 ZPPAUP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었다.

#### 2) 지정 절차 및 특징

ZPPAUP는 면단위 제도로 기존 '역사적 기념물 주변 보호구역'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문화재가 없더라도 역사적, 미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ZPPAUP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내용을 일원화하였다. ZPPAUP로 지정되면 기존 역사적 기념물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변 500m 보호구역은 효력이 중지되며 ZPPAUP로 대체된다.

ZPPAUP 지구 내에 있는 주요 건축물의 외관의 수정과 신축, 철거, 벌목, 개조 등의

2013, p.224 참조

5) Zone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6) 심경미, 차주영,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auri, 2014, p.82 수정인용

건축행위는 프랑스 문화유산건축가(ABF)<sup>7)</sup>의 의견을 받은 후 관할 관청에 의해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다. 건물입면, 재료, 조명, 나무 등 건물 외부공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보존구역(SS)과는 다르게 건물 내부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또한 지구 내 모든 광고는 금지되고 제한적으로 허용된 지구 내에서만 프랑스 문화유산 건축가(ABF)의 의견을 구한 뒤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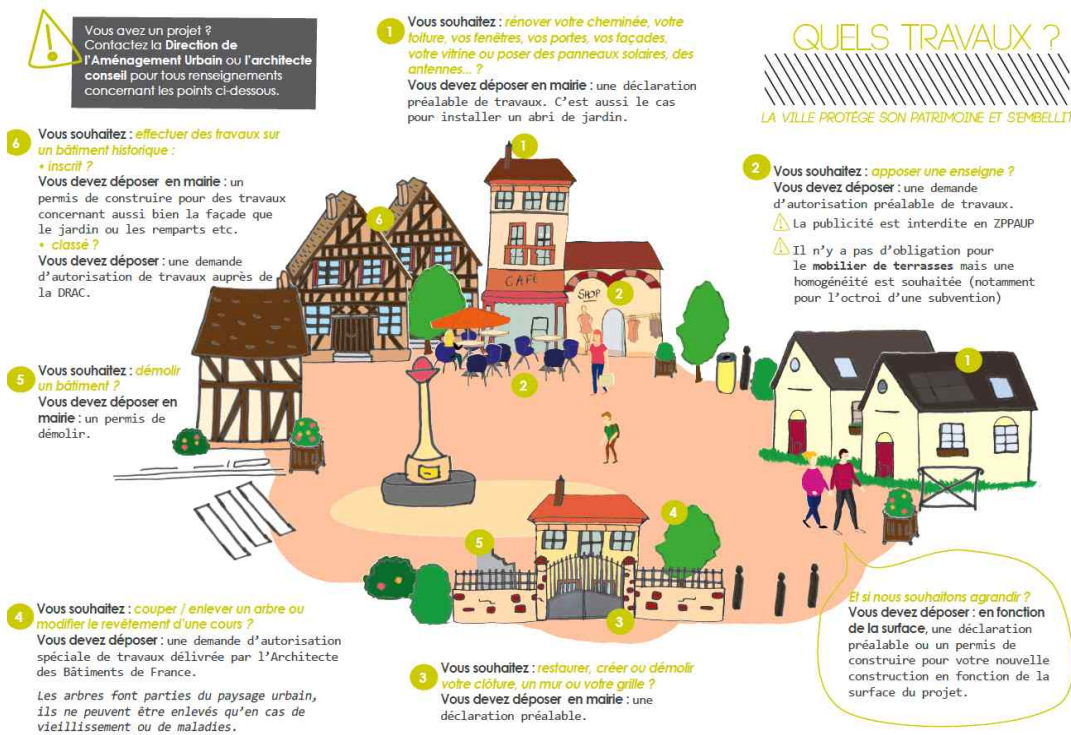


그림 18. ZPPAUP 지구 내에서의 공사 허가 사항 그래픽 설명서  
(출처: [http://www.fougères.fr/sites/default/files/sch%C3%A9ma\\_0.pdf](http://www.fougères.fr/sites/default/files/sch%C3%A9ma_0.pdf))

### 3.3 건축·문화유산 가치부여권역(AVAP)<sup>8)</sup>

#### 1) 개요

ZPPAUP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년 7월 12일에 제정된 「그르넬 환경법률 II」에 의해 '건축·문화유산 가치부여권역(AVAP, Aire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으로 전환되었다. 2011년 AVAP에 관한 시행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었는데, 그 중 목적 및 내용은 기존의 ZPPAUP를 계승하여 경관적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에 국토의 질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접근

7) 프랑스의 건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프랑스국가건축가(ABF)는 의무적으로 보존전문 학교인 에콜 드 샤이오를 졸업해야 한다. 이들은 전문 복원이나 설계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도시의 역사문화 환경을 감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에콜 드 샤이오는 건축학부를 전공한 졸업자에 한해 입학이 가능하다. 졸업 후에는 프랑스의 건축 문화재를 복원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1년동안 국가시험을 치르면 국가건축가로 임명된다. 이들은 자신이 관할하는 도에서 등록된 모든 건축문화재에 대한 단독 관리권한을 가진다.

8) Aire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이 추가된 것이다.<sup>9)</sup> 보존 관리의 대상이 특정 지구(ZONE)에서 광역적인 권역(Aire)으로 확대되었으며, 경관적 문화유산의 보호개념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보존 개념이 더해진 것으로, 환경법에 의하여 모든 건축물은 수리 및 리모델링 시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시 환경계획에 내용을 보면, 외벽의 단열, 이중창 사용, 태양판 설치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장치와 설치 방법과 제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 2) 지정 기준<sup>10)</sup> 및 수리 절차

건축·문화유산 가치부여권역(AVAP)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연합 및 광역)시에서 문화·건축·도시·경관·역사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정해야 하며, AVAP은 지역도시계획(PLU)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계획(PADD)에 부합해야 한다. 권역 지정이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 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 AVAP 내의 건축행위(신축, 토지정비, 철거)는 레지옹 문화사업부(DRAC), 레지옹 도지사과 프랑스 문화유산 건축가(ABF)의 결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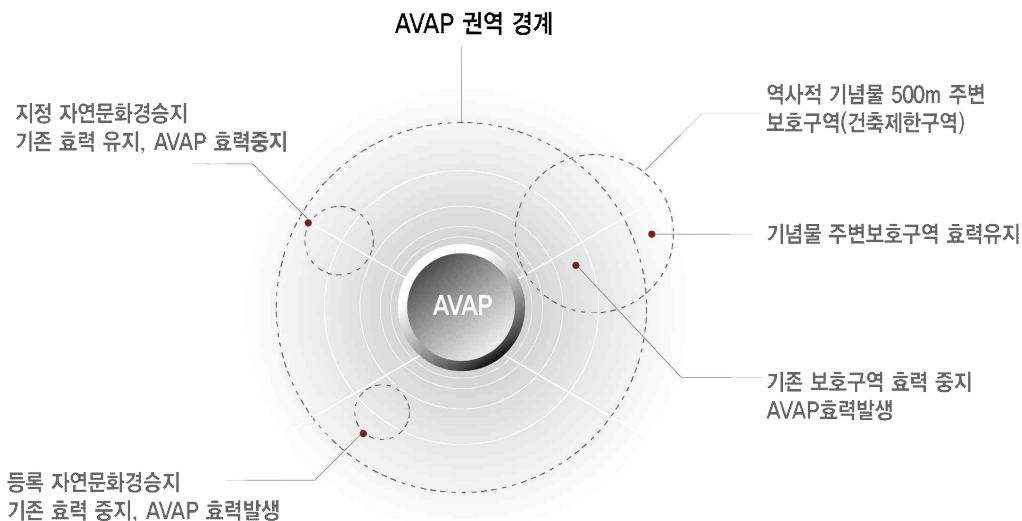


그림 19. AVAP의 효력 적용 범위

## 3.4. SS & ZAPPAUP & AVAP 차이점<sup>11)</sup>

프랑스의 역사문화유산 환경을 면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련제도는 보존지구(SS), 건축·도시·경관 문화유산 보호지구(ZAPPAUP), 건축·문화유산 가치부여권역(AVAP) 등 세 가지가 존재한다. 기존 말로법에 의해 도입된 보존지구(SS)와 경관법 제정에 의한 ZAPPAUP, 그르넬 환경법 제정에 따른 AVAP의 차이점은 계획수립의 주체와 지구 지정의 대상과 보존대상의 범위,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에 있다.

9) 최민아, 지방분권화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제도 변화 연구, 프랑스 건축·도시·경관 보호지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도 도시계획학회지 제 48권 제 3호, 2013, p.229

10) 문화재청,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2014, p.201

11) 심경미 외 1인, 전계서, 2014, pp.82-83 수정인용



첫째, 말로법에 의해 도입된 보존지구(SS)와 ZPPAUP의 차이는 계획수립의 주체에 있다.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주체를 살펴보면, 보존지구(SS)는 중앙정부 중심이었다면, 지방분권화 이후에 도입된 ZPPAUP와 AVAP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제도이다. ZPPAUP와 AVAP은 지정대상 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권한이 지자체에 있으나 중앙정부와 분리 또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 단계부터 계획 수립과 승인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상호협력 관계에 있다.

둘째, 보존대상의 범위는 경관법 제정으로, 건축과 도시에 한정되었던 역사문화환경 대상에 경관이 포함되어 확대되었다. 보존지구(SS)는 역사적인 구도심지역에 적용되며 ZPPAUP와 AVAP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지정이 가능하다.

셋째, AVAP의 지정 신청 시, 계획안 수립 이후 공공의견 조사를 거치는데, 이때 지자체 도시계획인 지역도시계획(PLU)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AVAP과 지역도시계획(PLU) 두 계획에 대한 수정 및 개정을 검토한다. ZPPAUP도 지역도시계획(PLU)의 부속도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계획 간의 일치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나 AVAP으로 전환되면서 각 부문 계획 간의 연계와 일치성을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 4. 프랑스 건축·문화유산 가치부여 권역(AVAP)<sup>12)</sup>의 특성

##### 4.1 AVAP과 지역도시계획(PLU)의 지속가능한 개발정비계획(PADD)

AVAP은 문화, 건축, 도시, 경관, 역사 또는 고고학적 가치, 역사적 건축물 외에 역사적 기념물이 아닌 것의 주변에 위치한 경관이나 건축물이 있는 장소, 또는 건축물이 없는 장소 등도 지정될 수 있다. 즉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닌 곳들도 AVAP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AVAP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존중하며 건축유산과 공간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적인 쟁점과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고려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호 및 도시정비개발의 총체적 요소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AVAP은 PLU와의 공조 조건을 만드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AVAP은 건축제한구역, 즉 보호구역과 같다. AVAP으로 지정된 권역은 토지이용계획(POS)과 지역도시계획(PLU)의 도시계획보고서와 토지 사용의 사전 승인에 대한 효력을 가져온다. 모든 건축제한구역처럼, AVAP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POS와 PLU의 부록으로 첨가해야만 한다. AVAP과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시계획 프로젝트에 포함된 공간을 제시해야 하고 또한 충돌하는 조항의 경우 PLU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불확정성을 피하기 위해 연계조항을 보완했다. AVAP의 권역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진단서는 PLU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정비 프로젝트 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AVAP 권역의 환경적 진단과 관련된 부분은 PLU의 환경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시 고려하고 보완한다. 마찬가지로 권역(aire)의 지정보고서 작성에도 PLU의 PADD와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호의 목적의 양립성(호환성, compatibilité)을 정

12) <http://www.outil2amenagement.certu.developpement-durable.gouv.fr/avap-aires-de-valorisation-de-l-architecture-et-du-r261.html> 참조

의해야만 한다. AVAP의 권역 지정승인은 PLU가 이 규정과 양립가능할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다.

## 5. 프랑스 AVAP 지정 사례를 통해 본 건축역사문화환경 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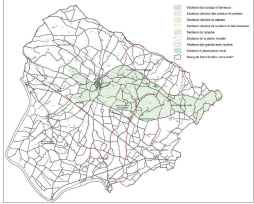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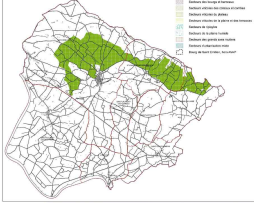
### 5.1 생떼밀리옹(Saint-Emilion)의 AVAP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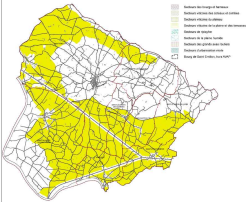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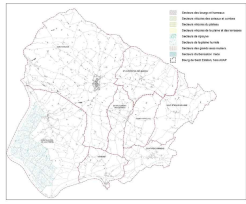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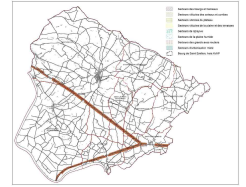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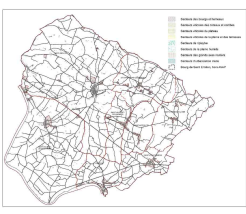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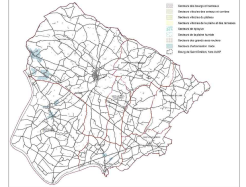
그랑 생떼밀리옹(Grand Saint-Emilion)의 고원의 연합 공동체 중 8개 고원으로 결합된 생떼밀리옹의 옛 영토는 보르도의 동서쪽으로 35km 떨어진 지롱드(Gironde) 데 빠뜨멍에 위치해 있다. 생떼밀리옹은 주목할만한 건축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마을로서 역사적인 포도밭 풍경도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포도원의 문화와 역사는 도시의 경관에 중요한 요소로서, 생떼밀리옹의 AVAP의 내용은 많은 부분 경관의 보존 관리 가이드라인에 할애하고 있으며, 권역의 특성을 자연 경관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섹터를 나누고 분석하고 있다.

#### 1) 생떼밀리옹의 AVAP 권역 설정 및 관리방향

생떼밀리옹의 AVAP의 권역은 기존 ZPPAUP으로 지정되었던 지구를 계승한다. AVAP 권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풍경의 아이덴티티와 도시의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섹터를 나누고 각자 섹터의 상황에 따른 규제를 설정하였다. 어떤 경우엔 너무 느슨하거나 엄격하기도 하며, 때론 부적합하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고대 마을의 컨텍스트, 도시의 활동적 컨텍스트, 경사지에 있는 와인을 재배하는 성의 컨텍스트를 고려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생떼밀리옹은 이처럼 다양한 도시의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마을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 8개의 섹터로 나누었다.

표 8. 생떼밀리옹의 AVAP의 8개 섹터별 세부 관리 방향

섹터	섹터별 세부 관리 방향	구역
경사지와 협곡에 위치한와인재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지의 특징을 가진 숲의 공간과 경사지 협곡 공간을 유지 및 보수</li> <li>-와인재배지의 조경의 기술을 유지 및 권장</li> <li>-생태학적 균형과 자연 경관의 조화를 유지</li> <li>-포도밭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을 보존</li> <li>-전통적 건물의 확장과 수정을 감독</li> <li>-모든 건축적 자원을 검토 ; 복원, 구성</li> <li>-시각적 풍경을 보호</li> </ul>	
고원에 있는 와인재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원의 풍경을 유지 보수</li> <li>-특징적인 식물군과 건축의 특징적 요소들을 보존</li> <li>-새로운 요소들의 통합</li> <li>-전망을</li> </ul>	

<p>평야와 테라스 형의 와인 재배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울가, 고립된 나무들, 숲의 복원</li> <li>-갯길, 울타리, 도랑의 상태와 유지 보수 고려</li> <li>-건축, 성의 공원, 가로수길, 농촌의 작은 문화유산의 특징적 요소들을 보존</li> <li>-전망을 보호</li> </ul>	
<p>습지형 평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문, 운하, 도랑의 유지 고려</li> <li>-포플러 나무의 확장 보호</li> <li>-습지와 비포장길 유지에 동참</li> <li>-전망을 보호</li> </ul>	
<p>강기슭 숲 섹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길의 활용과 유지를 고려</li> <li>-벌목을 규제하고 개간을 금지한다.</li> <li>-초원을 보호하고 차별화된 관리와 유지</li> <li>-수로와 관련된 전통적 구조물의 모든 형태를 보호</li> </ul>	
<p>큰 간선도로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큰 나무들을 정결하고 보호</li> <li>-정비의 경우, 새로운 큰 나무들의 식재 장려</li> <li>-광고의 제거와 시각적으로 오염된 강연안의 활동도 제한</li> <li>-전망과 경관을 보호</li> </ul>	
<p>고대 도시 마을과 촌락 섹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마을의 형태학적 구조를 보호하고 석재로 된 건물 벽의 복원과 유지를 위한 규정</li> <li>-상황에 따른 특정한 규정에 따라 기존 건물의 확장, 전통적 건축물의 특징을 반영하는 현대 건축물의 신축은 허용한다.</li> <li>-공간에 면해 있는 전통적 건축물을 고려하는 건축적 어휘, 재료, 색깔을 이용하면서 고대 마을과 촌락의 공공 공간을 활용</li> </ul>	
<p>혼합형 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히 식물이나 공공 공간의 재구성, 건물들의 단순한 볼륨과 전통적 재료를 고려하면서 이 영역의 경관을 재구성, 재건</li> <li>-새로운 건물의 미적 질을 개선하고 부지의 특별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li> <li>-기존 녹지 공간을 유지하고 새로운 녹지공간도 촉진</li> </ul>	

## 2) 생떼밀리옹의 AVAP의 세부 규정

생떼밀리옹의 AVAP의 세부 규정은 다양한 문화유산의 유형을 나누어 구성되어 있고 각 상황에 맞는 세부 규정도 기술하고 있다. 세부규정을 제시한 문화유산의 유형은 현존하는 고건축, 최근 혹은 신축 건물, 신축 농장 건물과 와인저장고, 공공건물, 포도밭의 경관과 경관 요소들, 숲, 울타리, 초원 등이 있다. 기존 ZPPAUP로 지정될 당시 규정된 세부규칙은 오늘날 위의 다양한 요소들을 규제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예를 들어 유형학적 자료들은 사용된 재료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있지 않거나 규제 사항들은 아래에 제시한 실제적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많았다.

### 3) 생떼밀리옹의 AVAP 권역 내 기타 가이드라인

#### (1) 건축물의 건축선 정렬에 대한 가이드라인



도로에 면해 입면이 일렬로 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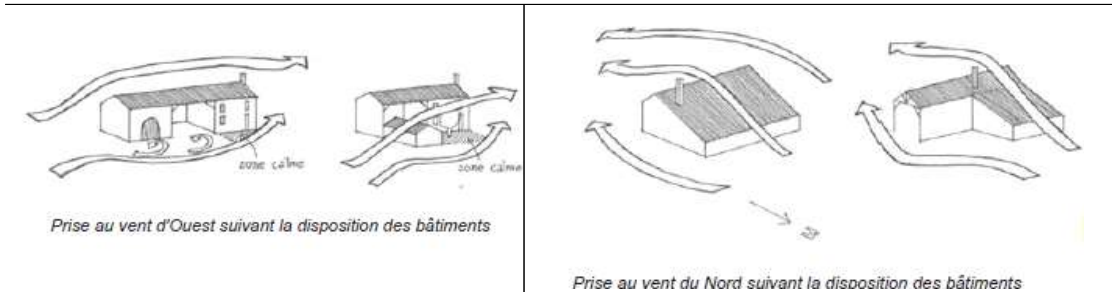
일렬로 정렬

\* SAINT-EMILIONNAIS, Aire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Rapport de Prés

그림 20. 도로에 면해 있는 건축물의 입면 건축선의 정렬을 고려하여 유지 관리

#### (2) 바람에 대응하는 건물 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바람이 많은 생떼밀리옹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자연환경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의 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



Prise au vent d'Ouest suivant la disposition des bâtiments

Prise au vent du Nord suivant la disposition des bâtiments

서쪽으로 부는 바람에 대한 건축유형

북쪽으로 부는 바람에 대한 건축유형

\* 출처 : SAINT-EMILIONNAIS, Aire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Rapport de Présentation & Diagnostic



그림 21. 바람의 방향에 따른 건축유형과 지붕

### 5.2. 툴롱(Toulon)의 AVAP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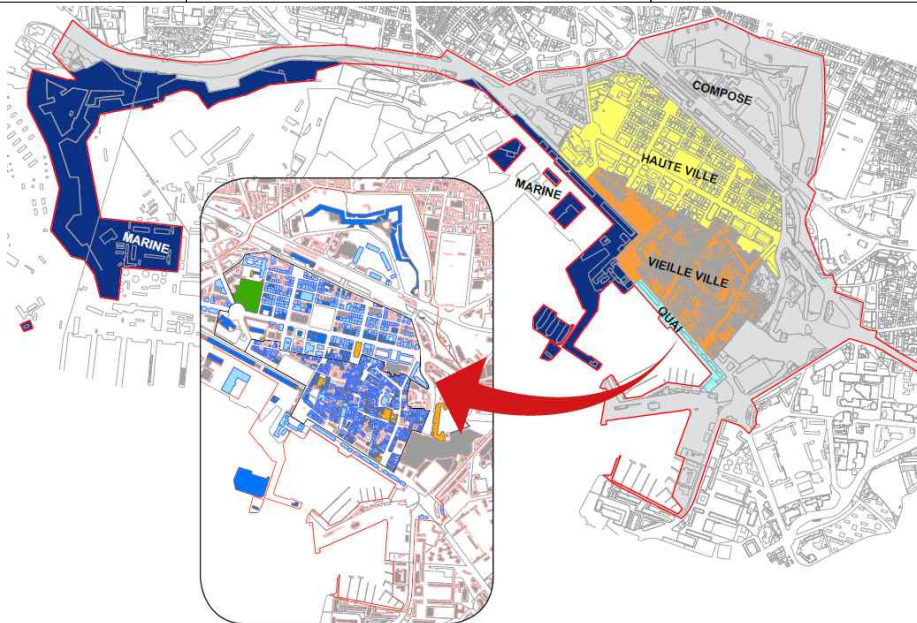
#### 1) 툴롱의 AVAP의 권역 설정 및 관리방향

툴롱은 오랜 기간 동안 역사, 문화, 도시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보존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4284 헥타르, 164,532명이 거주하는 도시 툴롱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2개의 자연문화 경승지(지정)를 보유하고 있다.

표 9. 툴롱 AVAP의 5개 섹터별 세부 관리 방향

Le Secteur	구역 특성
<p>Le Secteur Vieille Vil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리 4세 요새 유적지, 중세 조직과 17세기의 확장, Armes 광장 주변의 구도심 마을</li> <li>- 원형 요소를 보존하고 가능한 원형 회복</li> <li>- 규격과 분할된 토지 짜임을 보호</li> <li>- 공공 공간을 가치를 부여하고 통일성을 개선</li> <li>- 건축적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업공간의 정면(진열대)의 가시성과 통합을 유도</li> </ul> 

<p>Le Secteur Haute Vil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폴레옹 3세 시기에 건설된 고지대 마을과 19세기 부분</li> <li>- 원형의 요소를 보존하고 가능한 원형 회복</li> <li>- 건축적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업공간의 정면(진열대)의 가시성과 통합을 유도</li> <li>- 블록의 구조를 고려해야만 하는 식물의 구조물의 틀을 보호</li> </ul>	
<p>Le Secteur Compos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파괴 이후 건설된 현대적인 부분</li> <li>- 요새의 흔적을 보존 및 보호</li> <li>- 많은 종류의 식물을 취급함으로써 역사적인 마을과 함께 이 지역의 변화 충격 완화</li> <li>- 복합섹터의 경계와 조화를 통해 공공 공간과 건물의 개발을 이끌어 냄</li> </ul>	
<p>Le Secteur Qua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épublique과 Frontale 거리를 포함한 강변</li> <li>- 강가에 있는 원래 건축을 활용</li> <li>- 공동프로젝트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변형금지</li> <li>- 동일한 방법으로 공공 공간을 취급</li> <li>- 항구의 강변과 함께 연속성 있는 거리를 복구하고 레퓌블릭 거리와 함께 관계 강화</li> </ul>	
<p>Le Secteur Marin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VAP 권역 안에 있는 Base Naval 영역 / 방어시설에 속한 땅과 병기창 부분</li> <li>- 건물의 건축적 통합과 볼륨을 유지</li> <li>- 원래 요소들을 회복하고 건물을 복원</li> <li>- 식물의 구조물의 틀을 보호</li> </ul>	



\* 출처 : Toulon, AVAP\_Rapport de Présentation & Diagnostic

## 2) 돌롱의 AVAP의 권역과 세부유형에 따른 가이드라인

표 10. 구도심 지붕 부위 세부 규정





구분	규정 내용		
구도심 지붕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공지붕 금지</li> <li>• 경사도는 30% 초과 금지</li> <li>• 광장에 면해 있는 건물의 지붕은 반대로 경사면을 처리</li> <li>• 색조는 기존 기와와 조화를 추구</li> </ul>	
	Altana, 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래 규정대로 보존되고 복원</li> <li>• 지붕을 리노베이션 할 때, 지붕 완성 후 원상 복귀</li> <li>• 천창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li> <li>•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 창의 크기는 최대 60×80cm 제한되며 볼레는 금지</li> </ul>	
	테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구성방법을 존중</li> <li>• 현대적 건축양식으로 신축되는 경우, 지붕에 식물을 식재한 테라스로 사용될 경우만 허용</li> <li>• 지붕의 녹지화 권장</li> </ul>	
	굴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뚝은 파사드에 수직으로 교차하는 장방형 모양으로 설치</li> <li>• 도로에 면한 파사드에 굴뚝 또는 환기구는 금지</li> <li>• 굴뚝의 미트롱 재료는 테라코타나 세공된 양철</li> </ul>	
	안테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꼭대기의 안쪽으로 위치해야 함</li> <li>• 위성안테나(포물)는 입면에 금지</li> </ul>	

표 11. 구도심 마을의 파사드의 세부 규정

	구 분	규정 내용
파사드	파사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사드는 원래 상태로 복원</li> <li>- 건축적 장식이나 건물의 시대에 연관성이 없는 장식은 금지</li> <li>- 석공작업에서 절단석은 금지된다.</li> <li>- 석재로 된 부분은 모든 방법을 제외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세척</li> </ul>
	벽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르타르는 천연 수경, 소석회, 오리지널 재료의 규정 등 세 가지 층위로 선택</li> <li>- 19세기 중반 이후의 건물은 혼합된 모르타르나 처음에 사용되었던 수성 시멘트로 칠</li> <li>- 돌출된 석재에 대해 돌출된 걸칠과 같은 모든 마감은 금지</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걸칠은 원래의 색조와 동일하게 따르고, 석회도료 또는 미네랄 도료 등 두개층</li> <li>- 마감 색조는 마을의 색견본과 요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정함</li> <li>- 색조 견본은 마감단계의 실행 이전에 제시</li> </ul>
	쇠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문에 적용된 쇠시리는 원래의 규정으로 복구</li> <li>- 창은 광장과 유사한 구조물의 외형에 따라 회반죽으로 실행</li> <li>- 재료의 제한, 인공석조, 인조벽돌, 인조목재, 도금된 석재는 금지</li> </ul>
	빗물받이 흡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또는 공공 공간에 면해서, 빗물받이 흡통은 아연 또는 구리도 된 "팬던트"타입</li> <li>- 낙수흡통은 1층에 주물로 된 석루조와 함께 빗물받이 흡통과 같은 재료</li> <li>- 빗물받이 흡통과 낙수흡통 사이의 결합은 일직선 방법</li> </ul>
	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장이나 뜰을 제외하고 도로에 면해 있는 발코니의 수리는 좁은 길 때문에 금지</li> <li>- 큰 광장에 놓여있고 이미 발코니를 소유하고 있는 19세기 건물의 파사드는 그것이 파사드에 건축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새로운 발코니를 만드는 것이 허용</li> <li>- 큰 광장에 위치한 긴 도로의 블록의 복원을 할 때 허용</li> <li>- 에어컨디셔너, 환풍기, 위성 안테나 등 파사드에 돌출된 것은 모두 금지(파사드 뒤에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가능)</li> <li>- 온도조절기는 거의 보이지 않다면, 발코에 위치</li> </ul>
	철세공작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기와 19세기의 많은 수의 철물 작업은 여전히 건물에 존재하며, 그것은 원래규정대로 구성되거나 보존</li> <li>- 난간과 광장의 철 세공품의 교체는 건물 파사드의 양식(지역성, 신고전주의, 신고딕주의, 절충주의) 안에서 이루어짐</li> </ul>
목공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 목공 세공품은 보존되고 복구</li> <li>- 건물 파사드의 양식(17, 18세기 : 작은 사각형, 19세기 : 큰 사각형)에 따름</li> <li>- 새로운 목공품은 관련된 건물에 이미 사용했던 방법에 따라 시공. 주거의 단열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예외가 허락</li> <li>- 순수한 흰색은 금</li> <li>- 목공 세공품은 마을의 견본에 따라 규정된 색조 안에서 칠함</li> <li>- 징으로 장식된 나무로 만들어진 볼레(덧창)는 보존 및 복원되거나 또는 내부는 수평적으로 외부는 수직적으로 된 이중 판으로 된 볼레로 재구성</li> <li>- 내부의 볼레는 유지되거나 파사드에 덧창 없이 19세기 이전 구조물에 관해서 복구</li> <li>- 20세기의 건축물의 덧문 또는 볼레는 모든 구조물의 조화를 위한 계획에 따라 일반적 방법으로 원래 규정대로 복원</li> <li>- 덧문과 덧창은 마을의 색조 견본에 따라 칠함</li> </ul>	

## 5. 결론

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역사가 긴 프랑스의 관련법과 생떼밀리옹과 돌롱의 두 도시의 AVAP을 통해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첫째, 도시적 관점을 강조한 역사문화유산보존 정책

프랑스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활용 정책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여러 변화를 거쳐 왔는데, 먼저 보존 대상을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라는 점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역사적 기념물 주변'으로 변화하면서 면적인 측면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보존지구(SS)'지정과 경관을 고려한 '건축도시경관보호지구(ZPPAUP)'의 제도 마련으로 지구단위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오늘날, '건축도시경관보호지구(ZPPAUP)'는 세계적으로 중

요 테제인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지역도시계획법과 관련하여 '건축문화유산 가치부여권역(AVAP)'제도로 변화되었다. 이는 역사문화유산을 '도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유기적인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역사문화유산과 경관,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것은 AVAP 지정보고서에 지역도시계획(PLU)과 호환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건축문화유산 가치부여 권역(AVAP)' 지정을 위한 대상 지역의 철저한 자료조사

AVAP으로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도서는 '진단서'를 포함한 '지정 보고서'와 '세부규정', '그래픽문서'가 있다. 진단서는 '건축과 문화유산의 진단'과 '환경적 진단'을 통해 도시의 역사와 경관의 특성, 도시의 지형학, 건축물의 유형,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물의 전수 조사, 지리, 자연환경, 기후, 생태환경, 자연환경 등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지역의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한다. 따라서 지정 신청부터 승인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조사 시간이 걸리며, 이는 도시의 자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며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기록 작업이 되고 있다.

셋째,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본 연구는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생떼밀리옹과 툴롱의 'AVAP'의 세부 규정에서 두 도시는 지역의 자연적,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따라 권역을 여러 개의 섹터로 나누어 공간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생떼밀리옹은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8개 섹터로 나누었으며, 각 섹터별로 고건물과 최근 및 신축건물, 농장건물, 와인창고, 부속건물, 상업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동일한 AVAP 권역 안에서도 섹터에 따라 건물의 높이, 건축 재료, 건물의 정열 방법, 시공 방법 등 규정이 다르다. 툴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의 역사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라 섹터를 나누었으며, 각 도시조직의 차별성과 정체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한 도시 안에서도 여러 개로 구분된 섹터별 역사적, 환경적, 도시적 특성을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가치를 분석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보전지역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하나의 권역 안에서 획일화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도시의 조직을 분석하고 그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을 고려하는 제도로써 유연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 지구 내 영역 특성에 따라 세부규정을 마련한 것은 역사문화유산과 도시의 경관, 환경과의 맥락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역사문화유산을 관리.보존.활용하는 대상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역사문화경관의 보존구역을 도시계획차원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과 도시계획법의 일치성, 통합성은 매우 중요한 검



토 사항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시행되고 있다.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 및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며 건축자산진흥구역 제도를 시행한지 9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13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어려움, 지자체 인식의 부족 및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 등의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프랑스의 정책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규제 방식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 참고문헌

- 임유경 외 2인, 파리시 도시계획 제·개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문화경관 개념 확대와 도시 계획적 관리수단의 변화, 한국도시계획학회지 12(6), 2011.12
- 한승준, 프랑스 문화재정책 유형화에 관한 연구, 2010년도 공동학술대회, 2010.10
- 문화재청,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향 및 내용에 관한 연구, 2014
- 심경미, 차주영,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auri, 2014
- 최민아, 지방분권화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제도 변화 연구, 프랑스 건축·도시·경관 보호지구를 중심으로,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제 48권 제 3호, 2013
- 문화재청,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2014,
- 심경미 외 1인, 전개서, 2014, pp.82-83 수정인용
- 송영선,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프랑스의 법제연구, 2003.11, 한국법제연구원
- SAINT-EMILIONNAIS, Aire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RAPPORT DE PRÉSENTATION
- SAINT-EMILIONNAIS, Aire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DIAGNOSTIC ARCHITECTURAL PATRIMONIAL ET ENVIRONNEMENTAL
- SAINT-EMILIONNAIS, Aire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 RÉGLEMENT
- Toulon, AVAP\_RAPPORT DE PRÉSENTATION
- Toulon, AVAP\_DIAGNOSTIC
- Toulon, AVAP\_RÉGLEMENT
- RÉGLEMENT INTERIEUR DE LA COMMISSION LOCALE DE L'AIRE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DE LA VILLE DE COMPIEGNE
- Les Espaces Protégés -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Guide de Procédure l'Aire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Politiques-ministerielles/mouuments-historique/Sites-patrimoniaux-remarquables/Protéger-un-objet-un-immeuble-un-espace/Protéger-au-titre-des-espaces/AVAP-ZPPAUP>
- [http://www.mairie-compiegne.fr/iso\\_album/avap\\_reglement\\_interieur.pdf](http://www.mairie-compiegne.fr/iso_album/avap_reglement_interieur.pdf)
- <http://www.outil2amenagement.certu.developpement-durable.gouv.fr/avap-aires-de-valorisation-de-l-architecture-et-du-r261.html>



**주제별 토론 1 :**

**광주음성 고찰로 본**

**광주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과제**

**조 광 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광주읍성 고찰로 본 광주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과제

조광철(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김원중 실장님은 그동안 광주읍성의 발굴과 조사연구 그리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노력해온 사례를 잘 정리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으로서 광주읍성의 활용 방안도 제시해주었다. 그중 필자의 눈에 띄는 것은 소셜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 제공과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부분이다. 토론자도 이에 동의한다.

그런데 몇 가지 걱정되는 것도 있어 몇 마디의 말을 보탠다.

첫째, 디지털 정보 제공만큼 중요한 것이 오프라인상의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성문 터의 경우, 일부는 표석이 있으나 그렇지 않는 곳(남문)도 있다. 황동 명판처럼 소소한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성벽이 지나간 경로를 단일한 색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식장치의 통일성, 간결성, 시인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읍성 일대에는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것, 동구청이 설치한 것 등 통일성을 깬 설치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왕에 설치한 폴리도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읍성 공간구성이나 개별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장치로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남대 교정 내 동문 밖 석장승을 이전 또는 복원해 동문 터 앞에 세우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건물 중심의 활용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다.

역대 <광주읍지>, <1872년 광주지도>, <광주목 중기>(1889년), 오형묵의 <지도군 총쇄록>(1890년대), <전라남도 관찰부 중기>(1900년대) 등 각종 문헌자료에 나오는 읍성 내 건물은 수십 채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위치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물은 그 수가 매우 적다. 4개 성문, 향청, 형옥, 읍창, 객사, 하모당(관찰부 시절에는 선화당), 훈련청 등 정도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인 <1872년 광주지도> 내 건물배치도는 실제와 다른 점이 많고, 1926년 <광주읍지>에 실린 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건물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 같은 1910년대 <성내면 지적원도>도 지목(地目)과 국유지 여부만을 표시할 뿐이고 실제 해당필지 내 소재한 건축물의 명칭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건물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셋째, 특정 건물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시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활용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읍창의 경우를 보자. 읍창의 위치(충장로3가 24번지), 그것이 세곡의 수납과 보관을 했던 건물이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역사적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적잖은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치고는 효과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조선시대 관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그리 굵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장애요인이다. 고혈을 짜내던 읍창을 왜 기억해야 할까? 동학농민운동 참가자들을 효수한 네 성문과 공복루를 굳이 기념해야 할까?

넷째, 순전히 저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지만 왕왕 시민들은 건물 자체보다는 해당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에 더 큰 흥미를 보인다.

읍창의 경우, 단순히 세곡창고로서보다 읍창으로 사용할 때의 ㄱ자 건물을 이용해 남녀 신도석을 분리한 북문안교회가 문을 열었고, 건물이 헐린 뒤 일제강점기에 여러 상점들이 들어섰으며, 1971년 같은 자리에 이화성(호남대 설립자)이 미모사 양장점을 차렸고 그런 연유로 가든백화점 등 쇼핑몰(현재 흐앤므[H&M])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 같다.

이곳 미로센터 일대만 해도 1910년대까지 읍성 안이었음에도 지금의 중앙초교와 삼호빌딩(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입주한 건물), 궁동 예술의 거리는 모두 밭이었고 그중 삼호빌딩 일대는 광주관아 소유의 밭이었으며 오직 이 미로센터 자리에만 민가 한 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미로센터 옆에 파(巴)철공소가 생겼고 그 공장의 직공 출신인 권승관이 훗날 화천기공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말할 때 비로소 흥미를 가지는 것 같다.

이것은 광주읍성 내 공간구성이나 건물이 단순히 조선시대에만 머물러서 이야기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연결돼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별 토론 2 :**

**희경루 주변의 역사자원들을 연계,  
통합브랜드 전략 수립해야**

**박 준 수**

(전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 희경루 주변의 역사자원들을 연계, 통합브랜드 전략 수립해야

박준수(시인·전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조선시대 광주의 대표 누정인 희경루(喜慶樓)가 웅장한 모습으로 중건된 것은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뜻깊은 결실일 뿐 아니라, 역사자원이 빈약한 광주에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다.

특히 광주의 치소인 광주읍성에 존재했던 누각이 다시 복원되어 시민들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은 일제에 짓밟힌 통한의 역사를 씻어내고 광주의 숨결을 되살리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광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한층 높여줄 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당면과제이다.

먼저 희경루에 관해 대략의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신숙주(申叔舟)가 쓴 기록에 의하면 1451년(문종 1년) 군수 안철석이 부임해 옛 공북루 터에 새로이 누각을 짓고, 이름을 '희경루'라 칭했다.

당시 희경루는 남북이 5칸, 동서가 4칸으로 그 넓고 훌륭하기가 조선에서 제일이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886년에 목사 안응수가 다시 중수하였다.

하지만 희경루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광주읍성이 헐리면서 누각도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행스럽게도 '희경루 방회도'가 동국대 박물관에 남아 있어 희경루의 옛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되었다. '희경루 방회도'는 1546년 조선시대 과거시험 증광시문·무과에 합격한 동기생 5명이 1567년 희경루에서 만나 모임을 갖고 이를 기념하여 그린 그림이다.

광주시는 이 '희경루 방회도'를 토대로 광주공원 어린이놀이터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 공사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마침내 희경루의 옛 모습을 재현하게 되었다.

현재 중건된 희경루는 광주문화재단 산하 전통문화관이 운영을 맡아 전통체험(한복, 茶, 詩.書畫), 무형문화재 공연, 신진예술인공연, 희경루 주변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중이다. 내년에는 양림동, 사직공원, 광주공원 일대 역사탐방 프로그램 및 관덕정과 연계해 활쏘기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필자의 견해를 덧붙이자면, 현재 향교에서 진행하는 백일장(과거시험)을 비롯 임방울재단의 임방울국악제, 별밤 콘서트,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접목하면 좋겠다. 나아가 단순히 누각 건물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주변의 자원들을 연계해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희경루는 비록 원래의 자리에 복원된 것은 아니지만 광주 역사 지맥의 중요한 결절점에 들어서 있다.

희경루는 양림동-사직공원-광주향교-광주공원-광주천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주역사벨트의 꼭짓점에 자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희경루 일대는 광주의 근대와 현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중첩되어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희경루는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해 멀리서 무등산, 가깝게는 충장로와 금남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뷰 포인트(view point)이다.

먼저 인근 양림동은 사직산과 양림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동남쪽 언덕배기에 자리한 전통주거지역으로 가장 핫(hot)한 관광지이다. 근대기 광주의 부자들이 이곳에 집을 마련했거나 정자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최승효 가옥과 이장우 가옥은 광주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광주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곳이다. 광주사직공원에는 광주 갑부 정낙교가 세운 양파정이 있다.

희경루 가까이 광주공원 일대에는 시민회관, 광주향교와 비림(碑林), 서오층석탑, 시비(詩碑) 등 역사의 향기가 깊게 배어 있다.

또 바로 앞에 흐르는 광주천변에는 석서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광주장터와 한말의 병장 기삼연이 일본군에게 처형된 곳으로 알려진 광주교가 있다.

또한 도보로 걸으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옛 도시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도 있어 빈약한 광주의 역사관광자원을 보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희경루 복원을 계기로 역사문화자원과 장소성을 하나로 담아내는 통합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분절된 자원들을 하나의 컨셉으로 통섭하는 네이밍과 하드브랜딩이 필요하다.

일례로 읍성 서문(光利門)을 양림파출소 옆에 재현해 역사벨트의 랜드마크로 구축하면 어떨까 싶다.

결론적으로 점-선-면의 차원에서 접근해 구 도심 일대 역사 스토리를 발굴하고, 아울러 광주읍성 유적들의 전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기쁘고 경사스럽다'는 누각 이름처럼, 복원된 희경루가 광주의 새로운 천년의 비전을 세우는 상징물이 되길 기원한다.

**주제별 토론 3 :**

**역사문화기반 도시재생이  
중요한 이유**

**정 성 구**

(UCL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 역사문화기반 도시재생이 중요한 이유

정성구 (UCL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 전제

발제자는 도시적 관점에서 역사문화유산 보존의 의미와 중요성을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도시의 역사문화자산이 도시재생을 비롯해 도시공간의 가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언급하고자 한다.

도시의 역사적 환경은 도시 활동이나 도시 생활의 오랜 축적 속에서 배양되어온 것으로, 역사적으로 연속성 있는 도시 공간이나 전통문화는 시민 고유의 귀중한 재산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도시화가 빠른 나라에서는 근대역사문화의 흔적이 쉬 없어지기 마련이다. 근대에 건축된 많은 지역의 유산은 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 개발과 현대화의 과정 속에서 보존·활용 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상당수가 노후 멸실되었다. 현재도 보존보다는 개발이 앞서고 있고, 그 대상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라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당장의 가시적 성과와 단편적 치적에 집중하다 보니 원래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 버렸다.

근대기에 남겨진 도시 역사문화자산은 단순한 과거 자산이 아니다. 현재의 삶과 함께 하는 현재 자산이며 미래 삶의 근거가 되는 미래자산이다. 이 말은 한 도시에 근대 역사문화유산이 많을수록 정형화된 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미래형 도시가 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설명한다.

## 역사문화자산의 창의적 활용

도시들이 근대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도를 통한 변화를 모색하는 사례를 최근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구는 원도심의 골목길, 도시한옥, 근대건축물, 한약관련 전통시장 등을 활용해 '근대특별시'라는 슬로건을 표방할 정도로 근대 유산을 활용한 도시를 만들었다. 인천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고 인근 창고지역과 근대건축물군을 아트플랫폼이라는 문화지대로 전환시켜 근대문화 관광도시로 변모했다. 군산은 일제 수탈의 현장이었던 내항 및 일대 적산가옥 등 낡고 오래된 건축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활력을 잃어버린 구 도심권을 근대문화도시로 조성했다. 부산도 역시 전쟁 피난민들의 집단거주지를 중심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근대의 역사가 담겨있는 북항과 대청로를 중심으로 근대유산의 도시로 탈바꿈했다. 청주도 역시 폐쇄된 연초제조창을 활용하여 국제공

에비엔날레를 개최하고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를 유치하여 문화융복합단지 조성을 꾀하고 있다. 이상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를 활용하여 도시 발전의 매개체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장소DNA**

광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서점이던 곳은 지금도 서점이고, 과거에 빵집이던 곳은 지금도 빵을 팔고 있다. 마치 땅에 DNA가 있듯 10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같은 곳에 비슷한 가게가 있다.

1917년 광주 최초의 발전소가 있었던 수기동 기전상가 거리는 여전히 전기상가가 모여 있는 곳이고, 도시재생사업에서 빛을 이용하는 미디어아트 창의센터로 계획되었다. 청년 로컬창업자와 핫플이 모여있는 동명동 거리가 도심 한복판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휘어 있는 이유는 동계천 복개로이기 때문이다. 나무전거리도 마찬가지다. 경전선 철로 선형에 따라 형성된 이 거리는 지금도 여전히 목재소, 목공소가 모여 있으며,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유목공소를 만들고 이곳이 주민의 중심활동공간이 되었다. 영안반점 골목은 1년에 300쌍이 넘게 결혼했다는 시민회관 등 주변 대형예식장을 위한 식당가 거리였고, 중앙로는 광주읍성의 안과 밖을 나누는 구획선이자 물이 흐르는 도랑이었다.

양림동은 선교사들을 통해 신문화가 최초로 유입된 곳으로, 한국과 서구, 유교와 기독교, 전통과 근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개화기의 한옥,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서양식 근대건축물이 한 동네에 뒤섞여 있다. 군산과 인천 차이나타운의 근대 거리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양림동에 남아 있는 서양식 건축물들은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110년 역사의 양림교회, 1911년에 세워진 수피아 여중고, 전쟁 고아를 돌보기 위해 만든 충현원 등등. 같은 근대 건축물이라고 해도 인천에 남아 있는 은행, 사교클럽, 화교들의 주택과는 종류가 다르다.

시간이 묻은 벽돌과 부식된 기둥과 돌계단에서 느껴지는 100년의 시간 자체도 감탄할 만하지만, 양림동의 건축문화유산이 정말 의미 있는 건 이 공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웬기념각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 폐렴으로 사망한 오웬 목사를 기억하기 위해 그의 손자가 보내온 돈으로 세운 곳이다. 그의 한국 이름을 따 오기원기념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1919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던 당시, 대대적인 연설이 열린 장소이다. 2012년 드라마 각시탈을 찍은 곳이기도 하다. 독립운동 연설을 했던 곳이 한세기 뒤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의 촬영지가 된 것이다.

광주의 도시재생은 광주 원도심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마치며**

새것이 낡은 것을 바꿔치지 않으며, 새로운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낡은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들이 충돌 없이 상호 적응하는 혼합현상은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근대 역사문화공간은 우리의 인식전환만 전제된다면 '친근한 생활유산' 이자 '새로운 도시문화 재창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유산일까? 왜 깨끗하고 멋지게 새로 만들지 않았을까? 더럽고, 녹슬고, 변색된 콘크리트나 벽돌이 대부분인 유휴시설들을 왜 '유산'이라 부르며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갈고 닦아 굳이 재활용하려는 것일까? 이들은 지역민들의 기억과 흔적을 공유하고 창의성을 발현시킨다. 우리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했던 터전이며, 이 시설들로 인해 오늘날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 유산은 삶의 진정성이 강하게 스며있는 '진짜배기 생활유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도시의 강한 정체성으로 연결된다.

이때 '지역 유휴공간의 문화적 변용'은 도시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매개체이고 공간의 질적 수준과 활용 가치에 따라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과 방문객의 유입으로 이어지며 문화관광차원에서의 경제적 변화도 발생하게 된다. 즉 유휴공간의 활용은 새로운 개념의 '창의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16회 학술심포지엄자료집 <비매품>

지은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펴낸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김덕진  
펴낸일 . 2023년 11월 15일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3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민간단체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우편번호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 062)234-2727 전송 062)234-2728

홈페이지 : [www.rcef.or.kr](http://www.rcef.or.kr) / E-mail : [r-cultural@hanmail.net](mailto:r-cultural@hanmail.net)